

2009 예술의전당 운영보고서



Seoul
Arts
Center

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09



2009 예술의전당 운영보고서

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09





예술의전당은 '새로운 시작, 신선한 감동'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아래 명품기획과 수준높은 서비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세계 최고 복합아트센터를 지향합니다.

Mission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Operation of Arts Complex and Promotion of Arts Programs for Development and People's Enjoyment Culture and Arts

Vision

한국을 대표하는 복합예술센터로서 순수예술의 메카를 지향하며 국민 문화복지를 실현한다
A Mecca for Arts and Nation's Cultural Welfare as Korea's Most Representing Arts Complex

CONTENTS

이사장 인사말씀	Message from the Chairman	04
사장 인사말씀	Message from the President	06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08
연혁	Milestones	09
기구	Organization Chart	10
임직원	Staff	11

예술사업	Programs	
음악사업	Music	14
공연사업	Performing Arts	18
전시사업	Visual Arts	22
교육사업	Arts Education	26
대관사업	Hired Programs	30

기획운영	Administration and Services	
경영사업	Administration	38
고객서비스	Customer Services	40
홍보 & 마케팅	Public Relations & Marketing	42
아시아태평양아트센터연합회	AAPPAC	45
예술의전당 후원회	Patrons of the Seoul Arts Center	46

재정 및 통계	Finance & Statistics	
운영통계	Operating Statistics	50
예산실적	Budget Overview	52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Financial Overview	54

Message from the Chairman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았습니다. 눈꽃으로 가득 덮인 예술의전당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서운 칼바람이 실컷에 달기 전,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눈꽃 세상이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7년째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아직도 예술의전당 돌게 단을 오를 때마다 제 마음은 설렙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예술의전당은 1988년 이곳 서초동 우연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후 지난 22년간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메카로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약 3천만 명, 지난해만 해도 2백만 명이 넘는 예술애호가께서 마음속에 설렘과 감동을 담아갔습니다. 지난 2009년 한 해에만 1,568회의 공연과 98건의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로 가득했던 한 해였고, 김장실 사장님을 비롯한 예술의전당 임직원 여러분들은 관람객 한분 한분께 최고의 감동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단순히 '공연장', '미술관'이 아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복합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한 움직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에게 무료로 기획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햇살사업은 지난 한 해 총 만여 명을 초청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순한 '초청'의 개념을 넘어 문화소외계층을 초대하는 좌석 등급을 R석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객석 기부 캠페인 '객석기부 2171석'도 뜨거운 호응을 얻은 한 해였습니다. 기부자의 이름과 원하는 문구를 오페라극장 객석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총 8억여 원의 기부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기부가 기업이나 몇몇 특권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현실에서 일

반인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오페라극장 객석을 선물하는 미담을 전해 들으며 이제 진정 우리의 소박한 삶 속에도 기부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공연·전시 관람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듯이 예술의전당을 찾아 여유로운 한 때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미 예술의전당의 명물이 된 세계음악분수 외에도 음악광장과 계단광장에서 'The Park' 이름으로 '아와아트마켓'과 '잔디광장'을 펼쳐냈습니다. 또한 미술광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는 다채로운 무료공연과 대형스크린을 활용한 공연실황중계 등이 진행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8년 발표한 예술의전당 중기발전계획의 일환이었던 '자체 대표 시스템 도입'이 2009년 한 해 동안 산고의 고통을 겪고 2010년 4월 'SAC Ticket'이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입니다. 티켓 판매사의 시스템을 통한 티켓 판매에서 벗어나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매표소, 콜센터에서 직접 입장권을 판매해 예술의전당 고객은 보다 손쉽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최초로 시도되는 자체 매표시스템 도입은 앞으로 공연업계의 화두가 되고 변화를 선도하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지면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었던 2009년의 노력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문턱을 낮추면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한 해 동안 섬 없이 달려오신 예술의전당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오는 2010년에는 'Refresh! Seoul Arts Center'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에 나서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개혁하고 재정비에 다가오는 20년을 준비하는 2010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is winter has been typically brisk and chilly. Maybe you noticed the exquisite snowscape around Seoul Arts Center (SAC), keeping your heart beating strong full of warm bliss. This is my seventh year as chairman of the SAC and every time I walk up those stone steps, my heart jumps like it's my first morning at work. That exuberant feeling of 'restlessness,' I'm sure, is not limited just to me.

Since Seoul's preeminent arts center established at the foot of Mt. Wumyeon here in Seocho-dong in 1988, SAC has represented Korea's fine arts and culture community. Since then, some 30 million patrons and over two million last year alone have visited. Each has gone home with inspiration and exquisite cultural memories. In 2009 alone, we staged 1,568 performances and 98 exhibits. This past year, everyone at SAC, including our president Jang-sil Kim and staff, worked extremely hard to offer audience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best.

SAC is not merely another 'performance hall' in Seoul, but rather represents an integral ethos of Korea's multi-arts and culture institutions. To maintain such high expectations, we have offered the less fortunate the chance to enjoy special performances and exhibit programs free of charge through our 'Culture Sunshine Project'.

SAC's innovative seating system 'Seat Contribution 2171,' drew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the audience, allowing donors to have their names and preferred

quotations affixed to the Opera Theater seats. The operation brought in some 800 million KRW in funds, a change from relying on corporations and high-end patrons to contribute the majority of funds.

After two years of careful preparation of a new 'SAC self-ticketing system' from 2008, the system will now kick off in April 2010. The 'SAC Ticket' system will allow our patrons to purchase tickets directly from the SAC website, the ticket office, or the call center - the first such system for arts institutions in Korea.

Wrapping up my 'SAC Retrospective 2009,'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SAC made tremendous efforts to include a greater number of culture-and-arts-lovers, offering more audience-friendly, practical and comprehensive programs. I extend my sincere thanks to all members of SAC management and staff who ran the SAC over the past year. Under the new slogan of 'Refresh! Seoul Arts Center', we will start anew in 2010 to touch and inspire our patrons, becoming better prepared for the next 20 years. Your continued love, support and passion are as crucial as ever!

Thank you.

Se-Ung Lee
예술의전당 이사장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이 세 용

Message from the President



기축년의 다사다난했던 날들을 비취주던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장식했던 수많은 대소사건이나 예술의전당도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21세기에 들어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문화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2009년은 음악당과 서울

서예박물관이 개관한지 21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새로운 20년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은 특별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의 메카이자 예술의전당의 자랑인 오페라극장을 성공적으로 재개관하고, 이를 기념해 2009년 3월 6일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오페라극장 무대에 올렸습니다. 수준 높은 작품 제작을 위해 무대기계 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피트도 확장하고 분장실과 무대지원공간도 확충하여 성공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전기설비 기준도 강화하고, 불편했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객석을 교체하고 건축음향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제 오페라극장은 최고의 명성을 되찾았으며, 아티스트라면 꼭 한번 서보고 싶은 세계 최고의 무대로 거듭났다고 자부합니다.

두 번째,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관객편의시설인 <비타민 스테이션>을 조성하였습니다. 티켓에매·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플라자>를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비타민 스테이션으로 전진배치하였고, 다양한 식음료 시설도 확충하여 고객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티켓에매·강좌등록·대관신청 시 복잡했던 과정을 간소화시키기 위해 <SAC Ticket>시스템을 2010년 4월 완성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비스 마인드를 확산시켰고, 원숙한 관람문화 정착을 위해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펼쳐 관객과의 소통에도 힘썼습니다.

세 번째, 국내 대표 공연장으로서 예술성과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예술의전당에 상주하는 국립예술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과 국립예술단체의 장점을 보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국인에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문화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브랜드와 문화경쟁력을 창출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예술의전당과 국립예술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자본은 점차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와 더불어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근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번째, 최근 들어 예술의전당 내외부의 사회·산업·경제·정책 등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능 중심이었던 3국 13팀제를 공간별 특성을 강화한 2분부 11부서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은 문화산업을 '골목 없는 공장'이라 여기고 고도화·첨단화시키고, 국가의 주력사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예술분야를 관광, 교육·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시켜 지금보다 더 높고 강한 시장진입장벽을 설치하리라 예측됩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려면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조직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중성과 교육성을 고루 겸비한 품격 있는 클래식 프로그램을 선보여 국민의 삶에 보다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예술의전당의 프로그램과 사회공헌사업인 '문화햇살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사회적 연대성도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남춘재단·수출입은행·삼성사회봉사단·한화·서울기정병원 등 우리의 기업들과 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 10,037명과 문화예술이 주는 감동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술의전당이 기업들과 손잡고 추구하는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지속가능자수를 제고시켜 주는 계기로 마련해주고 모범적인 기업문화 창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음악영재를 발굴하고자 문화를 사랑하는 기업인 금호아시아나와 손잡고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캠프 & 콩쿠르>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무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지난 20년 동안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영광을 미래로 연결시키려는 예술의전당의 노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성된 예술영재들은 미래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문화선도국이 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민족 고유문화의 가치도 빛내주어 우리가 문화강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2009년 예술의전당의 눈부신 약진은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무한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후의는 예술의전당이 세계 최고의 복합아트센터로 도약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술의전당의 모든 임직원은 수준 높은 서비스와 역사에 남을만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클래식 한류의 본산으로 자리 잡아 국민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술의전당이 만들어 갈 문화자본은 우리나라를 문화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굳건한 뿌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해 동안 예술의전당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세웅 이사장님과 이사진, 후원회원님, 예술의전당 회원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s the ever-tumultuous Year of the Ox is drawing to a close, I think about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at Seoul Arts Center (SAC) in 2009, internally reinforcing our organizational competency to better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Externally, SAC worked toward preparing a comprehensive foundation that would contribute to a greater cultural welfare for our nation. In sum, 2009 was a special year, celebrating the 21st anniversary for our Music Hall and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Specifically, we successfully re-opened our newly-renovated Opera Theater, the centerpiece forum for Korea's performing arts. In commemoration of this event, <Le Nozze de Figaro> was staged on March 6, 2009. We pulled off the event by improving our stage equipment and orchestra pit as well as overhauling our dressing rooms and backstage facilities. Additionally, all fire and electrical facility standards were reinforced. Even the seating was upgraded to improve the existing viewing environment, letting us reclaim our reputation as one of the best operatic performing venues.

Second, we completed construction work for the <Vitamin Station>, our latest amenities center by maximizing audience convenience. On the same note, our <Service Plaza>, for ticketing and information services, has been relocated inside the Vitamin Station. Our food and beverage facilities were also expanded to offer greater varieties. In addition, we continued to work on the <SAC Ticket> system by April 2010, which will offer more streamlined ticketing. We regularly hosted the <Service Forum> to expand our services, launching several campaigns participated by our patrons to build a more mature viewing culture, based on active communication with our audiences.

Third, SAC reinforced its collaboration with its national performing arts troupes in residency to offer innovative productions on par with its standing as Korea's flagship performance center. Productions that combined the strengths of SAC and those of its residency troupes will offer our patrons an opportunity to enjoy high-quality culture and a variety of arts programs thereby enhancing their cultural well-being. Such an approach will also help

push Korea toward establishing its national brand and competitive cultural edge. This is necessary in order to march into the cultural battleground where SAC competes with advanced cultural superpowers. The kind of cultural assets we envision can only come from closer collaboration with our affiliated national troupes, which will surely act as the foundation of our artistic psyche.

Fourth, at SAC, we are witnessing overwhelming changes in and around our center. To affect change, we reshuffled our 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transformed the previous function-centered system of three divisions and 13 teams into the current system of two divisions and 11 departments. If we want to compete with the world's advanced countries, we need to incorporate state-of-the-art operations and transform our organizational essence, strengthening our competency and competitive edge.

In addition, SAC showcased some truly elegant classical programs in 2009 that had become the audience's favorites by helping to educate the public.

Throughout 2009, SAC was keen on exploring musical talents and prodigies, establishing plans to find young musicians through our camp and competition program to nurture young Korean talents.

Through the trust and support from our patrons and audiences in 2009, all of our management and staffs will continue to push SAC forward this year to become one of the world's top-rated multi-dimensional performing arts centers.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all who have worked so diligently to guarantee our prosperity and advancement. My particular thanks go to the SAC chairman, Lee Se-ung; Patrons of the SAC; and personnel. Their loving support and enthusiasm shown to us are deeply appreciated!

Thank you.

Jang-Sil Kim
예술의전당 사장
President of The Seoul Arts Center

김장실

이사장 — 이세웅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사 장 — 김장실

사무처장 — 박성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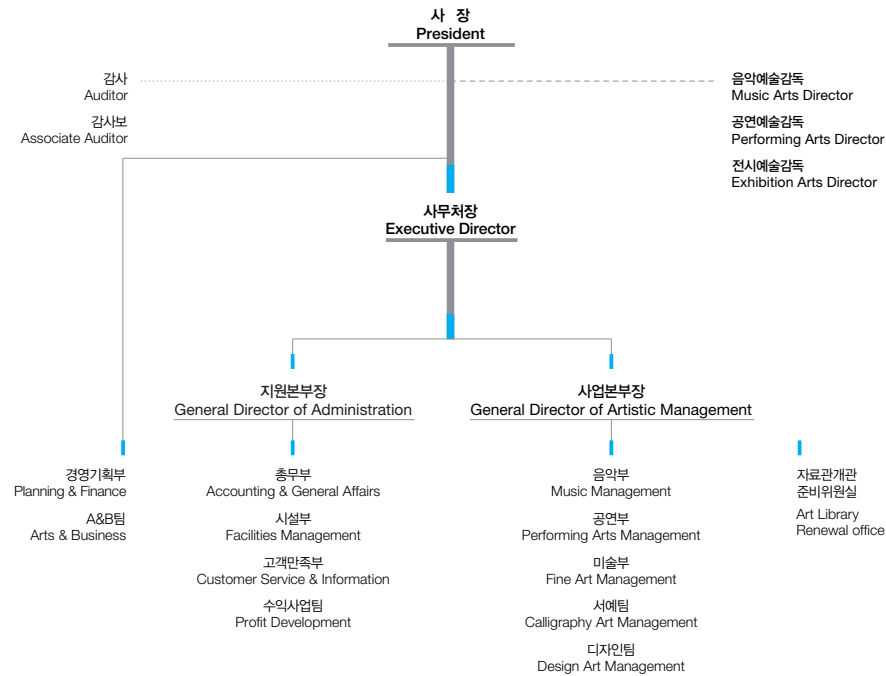
당연직이사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나영수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이소영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최태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이 사 — 고석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박정기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안국정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경숙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우근 법무법인 총정 대표
한용외 삼성생명보험 상담역

※이상 개나다 순
※2009년 12월 31일 기준

- 1982. 01 —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사업 발의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rts complex
- 1984. 11 — 예술의전당 건립 기공식
Groundbreaking Ceremony held
- 1987. 01 —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설립 등기
Seoul Arts Center incorporated and registered as a foundation
- 1988. 02 — 음악당, 서울서예박물관 개관 (1단계 준공)
Music Hall and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Opened (Stage I)
- 1990. 10 — 한가람미술관, 예술자료관 개관 (2단계 준공)
Hangaram Art Museum and Arts Library Opened (Stage II)
- 1993. 02 — 오페라하우스 개관 (전관 준공)
Opera House Opened (Stage III - full completion)
- 1997. 02 —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Event Commemorating 10th anniversary Opening
- 1997. 12 — 관람객 1천만 명 돌파
Marked 10 million in total audiences
- 1998. 10 — 예술감독제 도입 (음악, 공연, 전시)
Artistic Directorship introduced (Music, Performing Arts, Exhibition)
- 1999. 11 —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개관
Hangaram Design Museum Opened
- 2000. 01 — 국립 3단체 상주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Residence of three national arts companies
<Korea national Opera, Korea national Ballet, Korea national Chorus of Korea>
- 2000. 09 — 특별법인 발족
Re-incorporated as a special foundation
- 2002. 10 — 세계음악분수 완공
World Music fountain completed
- 2003. 03 — 전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Event Commemorating 10th anniversary of all venues' opening
- 2003. 08 — 한가람미술관 리노베이션 및 재개관
Hangaram Art Museum renovated and re-opened
- 2003. 09 — 관람객 2천만 명 돌파
Marked 20 million in total audiences
- 2005. 05 — 음악당 리노베이션 및 재개관
Music Hall renovated and re-opened
- 2008. 02 —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Event Commemorating 20th anniversary of all venues' opening
- 2008. 12 — 비타민 스테이션 완공, 오페라극장 리노베이션 및 재개관
Vitamin Station completed, Opera Theater renovated and re-opened





※2009년 12월 31일 기준
※As of Dec. 31, 2009

사장	김장실
사무처장	박성택
전시예술감독	김미진
감사	김수연
지원본부장	유남근
사업본부장	전해웅
감사보	최강수
경영기획부	태승진(부장) 이준호 송성완 김우진 송병하 김세연 김경민 노형선
A&B팀	김광수(팀장) 손미정 조현아 염기영 고재진 김수정 박경복
총무부	조내경(부장) 김영곤 박치웅 김혜수 김명옥 오충식 이재석 이동훈 이주연 권세정
시설부	배성기(부장) 이은관 송기봉 이재상 염기섭 조종구 최관태 정현근
고객만족부	윤동진(부장) 임종호 안진모 이미숙 박혜숙 최석중 박거일 박상현 박병현 신혜경 강호국
수익사업팀	이원호(팀장) 곽동희 김미희 고정근 정규승
음악부	정동혁(부장) 정재영 김효균 김준웅 서창석 박재경 황복희 김지영 성은미 윤대성 김상근 권규완 박천일 김혜연 유연경 김신년 신현주 이동조 김영수
공연부	신영균(부장) 박상훈 공준택 천세기 김민서 김찬균 구본학 최현규 유재일 이용상 김세연 박남석 박민정 윤경석 이보만 오승천 이윤호 유우식 류동진 이태훈 양우제 서고우니 이동환 손명성 정다미 문성욱 이승진 이정아 김영민
미술부	감윤조(부장) 이재석 채홍기 조성문 최진숙 서민석 배민경 김성진
서예팀	장재욱(팀장) 이동국 최종철 김낙곤 김영량 이소연 김현숙
디자인팀	문창국(팀장) 임재홍 이상은 기문주 김미경
자료관개관준비위원회	이응욱

※2009년 12월 31일 기준



Beautiful Life!

with Seoul Arts Center

REPORT ON PROGRAMS

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09

REPORT ON PROGRAMS

예 . 술 . 사 . 업

음악사업 Music
공연사업 Performing Arts
전시사업 Visual Arts
교육사업 Arts Education
대관사업 Hired Programs



2009 음악사업

PROGRAMS OF MUSIC

2009년 음악당은 클래식 문화를 우리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초심자 관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하였다.
또한 탄탄한 연주력을 만끽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무대를 준비하여 새로운 감동을 재창출하였다.



콘서트홀 Concert Hall

2009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 1/2

새봄음악회 Spring Concert | 2/23

뷰티풀 11시 콘서트 Beautiful 11am Concert | 1/8, 2/12, 3/12, 4/9, 5/14, 6/11, 7/9, 8/13, 9/10, 10/8, 11/12, 12/10

한화금융네트워크와 함께하는 11시 콘서트 11am Concert with Hanwha Finance Network | 1/9, 3/13, 5/15, 8/14, 10/9, 12/11

교향악축제 Orchestra Festival | 4/3~4/21

어린이음악회 Kids Concert with Aera Shin | 5/5

청소년음악회 SAC Youth Concert | 5/16, 6/20, 7/18, 9/12, 10/17, 11/28

베스트 클래식 Summer Music Festival - The Best Classics | 8/1, 8/2, 8/8, 8/9, 8/15, 8/16

팝스 콘서트 Pops Concert | 9/26

예술의전당 회원초청 음악회 SAC Friends Membership Concert | 10/18

화이트 크리스마스 White Christmas | 12/23

제야음악회 New Year's Eve Concert | 12/31

리사이틀홀 Recital Hall

여름 실내악 Summer Music Festival - Summer Chamber Music | 8/11~16

뷰티풀 클래식 Beautiful Classic | 6/26, 8/21, 12/18

예술의전당 후원음악회 SAC Patrons Concert | 12/26

2009 음악사업

PROGRAMS OF MUSIC



200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기획 기조는 클래식음악 애호 인구를 늘리고 보다 향상된 관객의 향유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클래식 문화를 전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초심자 관객이 클래식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주 도중 영상을 보여주고 해설을 곁들여 교육성과 대중성을 강화한 콘서트들을 선보였다. 클래식마니아를 위한 정통 클래식 콘서트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기용하여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하여 탄탄한 기획력과 돋보이는 연주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에서도 대중성과 교육성을 더욱 강화하여 초심자부터 마니아까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이 공연은 초심자를 마니아층으로 흡수하여 클래식음악을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인기를 증명하듯 2009년에도 어김없이 매진사례를 보여주었다. 〈청소년 음악회〉의 2009년 주제는 “위대한 베토벤”이었다. 베토벤의 음악을 쉽지만 깊이 있게 설명하여 청소년층에게 클래식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통 클래식 연주내용을 기반으로 한 〈베스트 클래식〉과 〈여름 실내악〉에서도 해설을 통해 누구나 쉽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레퍼토리 구성과 공연기획에 예술의전당만의 노하우가 더해져 크게 호평 받았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클 것이라 평가받았다. 어린이가 미래의 문화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한 〈2009 어린이음악회〉에서는 ‘동물의 사육제’와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에 나오는 레퍼토리들과 함께 어린이 정서함양에 유익한 곡들을 소개하였다. 연주 도중 어린이 관객이 지루하지 않도록 일러스트를 함께 보여주어 부모와 어린이 관객 모두에게 사랑 받았다. 예술의전당 음악당의 역사와 함께한 정통 클래식 무대인 〈2009 교향악축제〉에는 전국의 17개 교향악단이 참여하였다. 신실된 협연자 오디션 제도에서 선발된 3명의 연주자와 더불어 최고 실력의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여 그 위상을 빛내주었다. 예술의전당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에서 출발한 새로운 기획시스템은 역대 최대 유료매포로 이어졌으며, 교향악축제가 우리나라 클래식음악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9월 음악당에서는 〈제1회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캠프 & 콩쿠르〉라는 매우 특별한 행사도 있었다. 국내 최초로 음악캠프와 콩쿠르를 결합시킨 음악영재 육성프로그램으로 음악영재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 교수진에게 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격년제로 개최되며,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간 음악영재들이 세계무대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념일과 절기를 기념해 열리는 〈신년음악회〉, 〈새봄 음악회〉,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아음악회〉에서는 특별한 날의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 정통클래식과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구성하여 관객과의 교감에 성공하였으며,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팝스 콘서트〉에서는 엄선한 트로트 가요를 클래식 협주곡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로 관객과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09년은 예술의전당 음악당이 새로운 20년을 향해 도약하는 첫 해로 지난 20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공연, 교육, 콩쿠르 등 다양한 사업과 분야를 접목시켜 큰 감동을 재창출한 원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The SAC Music Hall's big trend in planning its programs 2009 was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love classical music, thereby spreading classical music to every corner of Korean society. Moreover, we aim to aggressively respond to the needs of customers who obviously have greater expectations for the arts. As part of such initiatives, we reinforced educational functions and offered a greater appeal during concerts, adding video footage of performances and programming comments to help our beginner-level audiences. For our advanced-level programs aimed at devoted classical music fans, we auditioned new artists, showing off their talent in a wide range of repertoires.

SAC also showcased <SAC 11 AM Concert>, with increased public appeal and educational quality. The program, which sold out every time in 2009, was favored by audiences, ranging from beginners to advanced art-going connoisseurs. It expanded the foundation for our society's classical music capacity by embracing beginners and nurturing them into expert-level fans. The overriding theme for our <2009 SAC Youth Concert> was "Beethoven, the Great Composer," which successfully brought the ethos of his music to younger audiences. In addition, we offered two programs <The Best Classics 2009> and <Summer Chamber Music>, both of which were based on classical performances. SAC's accumulated know-how was mixed particularly well with the repertoire building and performance planning, drawing rave reviews from critics. <2009 SAC Kids Concert> designed to help our children appreciate fine art, showcased repertoires such as 'The Carnival of Animals' and excerpts from the opera 'The Barber of Seville,' as well as other pieces. To help prevent boredom, the children were shown illustrations related to the various pieces. Both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showed enthusiasm toward such a novel approach. <2009 Orchestra Festival>, the prestigious authentic classical music stage that has shared many years of history with the SAC Music Hall, was host to 17 symphony orchestras from around the country. The newly-introduced audition program designed to select the musicians produced three talented artists who became part of the country's first-rated performers, turning the event into a truly-exhilarating event. The new planning system, the fruit of SAC's years of know-how, led to record-high ticket sales for the festival.

In September 2009, the Music Hall hosted an extremely special program called <The 1st SAC Music Prodigies' Camp & Concours>. As Korea's first-ever partnership between music camp and concours for young music talents, the program offered our prodigies opportunities to receive lessons from the world's top-notch music professors. The Camp & Concours will be hosted every other year, ensuring their growth and prosperity on the global stage. In addition, SAC's other routine programs celebrating special days and seasons, such as <2009 New Year's Concert>, <Spring Concert>, <2009 White Christmas Concert> and <2009 New Year's Eve Concert>, successfully entertained the audiences by combining blue-blood classical numbers with more popular pieces. <SAC Pops Concert 2009>, in particular, presented new attempts at arranging carefully-selected "trot" genre numbers into classical ensemble pieces, a decision that drew rave reviews. The year 2009 was the year where the SAC Music Hall combined our 20-year know-how with outstanding programming, education and concours to deliver even deeper inspiration and satisfaction to all our patrons.



2009 공연사업

PROGRAMS OF PERFORMING ARTS

2009년 공연사업의 중요과제는 오페라극장을 성공적으로 재개관하고,

새로워진 오페라극장 무대를 채울 프로그램을 위하여

예술의전당에 상주하는 국립예술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재개관기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Seoul Arts Center Opera Theater Grand Reopening Opera <The Marriage of Figaro> | 3/6~3/14

백조의 호수 The Swan Lake | 12/9~12/13

송년발레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 | 12/18~12/24

송년오페라 갈라 콘서트 Opera Gala Concert | 12/29~12/31

토월극장 Towol Theater

토월정통연극 11 <템페스트> Towol Classic Series 11 <The Tempest> | 5/20~6/6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Family Opera <The Magic Flute> | 8/1~8/16

자유소극장 Jayu Theater

제13회 전국 청소년연극제 The 13th Youth Theater Festival | 11/18~11/26

야외공연 Outdoor Stage

핑거 스타일 기타 월드 Finger Style Guitar world | 5/1~5/31

2009 디지로그가 되다 Alice in wonderland | 5/30

안성죽산국제예술제 Juksan International Arts Festival | 6/7

더 바디스트라 The Bodiestra | 6/13

디토 페스티벌 DITTO Festival | 6/27~6/28

브라스 마켓 Brass Market | 7/11

시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음악회 A Midsummer Night's Concert for a citizen | 7/24

비보이 댄스 배틀 3 on 3 B-boy Battle | 7/25

제14회 장애인을 위한 꿈씨음악회 The 14th Dream Concert for Disabled | 8/22

찾아가는 영화관 <하바나 블루스> Movie, Habana Blues | 8/25

퓨전 재즈 밴드 트리톤 Jazz Concert in the flower | 9/19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6 빈 필하모닉 & 조수미 Hyundai Card Super Concert VI Vienna Philharmonic & Sumi Jo | 9/29

마음을 그리는 수묵화 Drawing on my mind | 10/10

개그락큐 <완승> Music Drama-Gag Rock Ballet WanSeung | 10/17

2009 공연사업

PROGRAMS OF
PERFORMING ARTS

2009년 3월 6일 오페라극장 재개관을 기념해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 버전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무대에 올렸다. 이 작품은 2002년부터 해외 최상급 오페라극장들과 함께 추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작품 중 하나이다. 이미 국제적 공인을 받은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선정하여 최고 수준의 국내외 성악가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이 사업은 세계적인 성악가의 기량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오페라 애호가로부터 주목 받았다. 이번에 선보인 〈피가로의 결혼〉도 개성 있는 무대와 천재 연출가 데이비드 맥비커의 연출로 이미 해외에서 호평 받은 작품이다. 소프라노 신영옥, 바리톤 윤형,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리톤 조르지오 카오두로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을 비롯한 조역가수 다섯 명이 만들어낸 화려한 앙상블은 관객과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으며, 오페라극장 재개관을 축하하는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도 선사해 주었다. 아울러 세련된 무대장치와 섬세하고도 현실감 있는 조명도 화제가 됐으며, 오페라 무대의 백미를 보여주었다는 극찬도 이끌어냈다. 또한 지휘자 이온 마린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이루어 낸 섬세하고 화려한 교감은 오페라 애호가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였다.

2009년에는 예술의전당과 국립예술단체와의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되었다. 국립발레단과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을, 국립오페라단과는 〈송년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12월 오페라극장 무대에 올렸다. 2003년 이후 6년 만에 오페라극장을 찾은 〈백조의 호수〉는 살아있는 신화라고 불리는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안무로 완성되었는데, 특히 박술기, 정영재 등 신인 발레스타의 등장이 빛났던 무대였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장식하는 〈호두까기인형〉도 비슷한 시기에 관객을 찾아 발레 애호가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가족관객으로부터 크게 호평 받았다. 국립오페라단은 〈송년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오페라극장 무대에 올려 새로운 연발 정례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 이 무대는 2009년 국립오페라단이 공연한 오페라 〈나비부인〉과 〈노르마〉의 아리아로 구성된 하이라이트와 김영미, 고성현 등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성악가의 무대로 꾸며졌다. 또한 지난 6월 타계한 성악가 오현영 선생을 추모하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하여 우리나라 오페라 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열정을 기리기도 하였다.

토월정통연극 시리즈 11번째 공연인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가 당대 최고 연출가 중 한 사람인 손진책의 연출로 토월극장 무대에 올려졌다. 이번 작품의 특징은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현대에 맞추어 용서와 화해로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개작하였다. 절망을 새롭게 분석하고, 극의 형식도 마당놀이 방식으로 풀어내 다소 생소했을 수도 있었지만 복잡한 셰익스피어 원작을 관객에게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을 이끌어 냈다.

가족오페라 〈마술피리〉는 여름방학 시즌인 8월 토월극장 무대를 장식했다. 2007년 새로 단장한 무대와 의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휘, 연출, 출연진을 전면 교체하였다. 특히 지휘자 여자경과 연출가 장영아 콤비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발휘해 작품 전반에 부드럽지만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오페라 본연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하여 오페라의 백미인 아리아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독일어로 연주하였고, 대신인 레치타티보의 어린이와 청소년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재연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관객과 오페라를 보다 친숙하게 해주었으며, 작품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매년 청소년에게 청의성과 문화적 소양을 함양시켜주기 위해 개최하는 〈전국 청소년연극제〉도 자유소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연극문화의 저변을 확대시키기며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의 18개 고등학교가 참여해 9일 동안 기량을 겨루었으며,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On March 6, 2009, the British Royal Opera House's version of <Le Nozze de Figaro> was staged to commemorate the re-inauguration of the fine art facility. The production was a collaboration with top-rated opera houses around the world. Produced by selecting an opera with proven popularity and integrity i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engaging some of the first-rated Korean and non-Korean vocalists, the collaborative projects ar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enjoy world-renowned operatic singers. <Le Nozze de Figaro>, too, had already received great review from overseas critics, thanks to its unique stage directorship under David McVicar. The magnificent ensemble created by the internally-acclaimed leading vocalists, such as soprano Young-Ok Shin, baritone Hyung Yun, counter-tenor Dong-gyu Lee and baritone Giorgio Caoduro, as well as five supporting vocalists received enthusiastic reviews. In addition to the performance itself, the production's sophisticated stage equipment and exquisite yet realistic lighting also made headlines. Reviews included lavish compliments that the product showed the zenith of what operatic art stands for. The fine yet flamboyant chemistry of conductor Ion Marin and Korean Symphony Orchestra produced in collaboration was reviewed as extremely inspirational and moving to those who attended.

2009 became the first year when we began our full-fledged collaboration with SAC's residency arts troupes. In December, we staged <Swan Lake> and <The Nutcracker> with the Korea National Ballet (KNB) and <2009 Opera Gala Concert> with the Korea National Opera (KNO) at the Opera Theater. <Swan Lake>, which re-visited the theater after a six-year absence, was choreographed by the legend Yuri Grigorovich. It featured rising ballet stars like Seul-Gi Park and Young-Jae Jung. <The Nutcracker>, the annual Christmas season gala performance, was also staged in December, offering a wider range of choices to ballet lovers. KNO established a new year-end regular program by staging their <2009 Opera Gala Concert> at our Opera Theater. The same stage earlier included the production of <Madama Butterfly>, aria highlights from opera <Norma>, and recitals by world-renowned Korean-born vocalists such as Young-Mi Kim and Seong-Hyun Ko. In addition, KNO offered a memorial concert dedicated to the late Hyeon-Myeong Oh, the renowned opera singer who passed away in June 2009. The heartfelt event helped us all remember the late master's passion.

SAC's Towol Theater presented its 11th-season authentic stage work series <The Tempest> by William Shakespeare, directed by top-rated theatrical director Jin-Chaek Sohn.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production was that the ending of the play was revised to feature a happy ending, reflecting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 new interpretation of despair and the adaptation of the format into the traditional Korean stage work Madang Nori, might have been rather unfamiliar for today's audiences. But the public loved the more viewer-friendly production, in lieu of the elusive original by the English playwright.

The family audiences' favorite <Die Zauberflöte>(Magic Flute) was staged at Towol Theater in August, the conventional summer break month. The stage work and wardrobe procured back in 2007 were maintained, while the conducting, directing and cast were all replaced to raise the overall integrity of the production. The all-female conductor-director combination featuring maestro Ja-Kyung Year and director Young-A Chang, was reviewed as bringing a female sensitivity to the production, delivering a gentle yet strong impression. To help communicate the authentic sentiment of the opera's German libretto, the arias - the highlights of the opera - were sung in German, with Korean subtitles. Additionally, the recitative - the speech - was delivered in Korean to help facilitate understanding for those youngsters attending. Such flexibility in presentation styles brought the audience and the opera closer to each other.

<Youth Play Festival>, held annually to instill creativity and fine cultural sustenance to children and youth, was hosted at SAC's Jayu Theater. Celebrating its 13th season, the event continued to help expand the number of theater-loving goers. A total of 18 high schools, chosen from regional preliminaries, competed during the nine-day festival, helping to promote the local fine arts.



2009 전시사업

PROGRAMS OF VISUAL ARTS

2009년 전시사업은 낮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예술의전당이 복합예술센터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예술의 다양성을 소개하여 교육생들이 예술적 지평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소장작품(사진) 특별전 - 희망의 기억2 Exhibition 'Memories of Hope 2' | 3/6~3/29

2009 미술과 놀이 - 아트인슈퍼스타 2009 Art & Play - Art in Superstar | 7/18~8/23

재외 한국 청년미술제 - U.S.B Emerging Korean Artists in the World - 2009 U·S·B | 11/5~12/6

아름다운 다리 Beautiful Bridge | 11/24~12/6

르네상스 프레스코 걸작 재현전 Renaissance afresco masterpieces | 12/19~2010.2/21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소치 허련(1808~1893) 탄생 200주년 기념특별전 - 소치이백년, 윤림이만리
Sochi Huh Ryun 200th Anniversary Exhibition | 2008.12/27~2/1

청명 임창순선생 작고 10주기 기념전 예술의전당 기획 글씨&사람 ① 방랑연운 - 청명 임창순(1914~1999)
The 10th Anniversary Special Calligraphy Exhibition of Chungmyung Im Chang-soon | 4/16~5/10

현대작가특선 ⑦ & 원곡 김기승 탄생 100주년 기념 - 김기승 "말씀대로"
The 10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Wonkok, Kim Gi-seung | 7/17~8/16

의거義舉·순국殉國 100년 / 서예사 특별전 27 - 안중근, 독립을 넘어 평화로
The 10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patriotic deed of Martyr Ahn Joong Geun | 10/26~2010.2/15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문자놀이 4 Playing by Typography 4 | 2/18~4/28

까사리빙 디자인워크 2009 2009 CASA Living Design Walk | 2/25~3/22

미피의 즐거운 미술관 Miffy at the Museum | 7/2~8/30

V-갤러리 V-Gallery

20세기 디자인의 거장 - 찰스임스 A Master of the 20th Century Design Charles Eames | 2008.12/6~3/29

거울신화 MYTH in the Mirror | 4/3~5/8

The Print The Print | 7/8~7/19

나미나라공화국 국가브랜드 Naminara Republic Branding Exhibition | 12/3~12/27

2009 전시사업

PROGRAMS OF VISUAL ARTS

한가람미술관

2009년 한가람미술관의 기획 기조는 대중에게 현대미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시도로 예술의전당 통새 공간에 <Red Mouse>라는 '틈새 공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예술작품을 일상 공간에 배치하여 공공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미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미술과놀이>전의 2009년 주제는 '아트인슈퍼스타' (Art in Superstar)로 서구사회의 슈퍼스타 개념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슈퍼스타가 남겨준 이미지가 현대미술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더불어 작품 속의 슈퍼스타의 친숙한 이미지들은 현대미술을 대중과 더욱 가깝게 연결해주는 가교가 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젊은 한국 작가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재외한국청년미술제>의 주제는 'USB'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젊고 참신한 우리 작가와 국내 미술계의 연계성을 높였으며, 국내 관객에게는 각국의 문화와 접목된 한국미술의 새로운 흐름과 경향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관전시로는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황금빛 비밀의 주인공 <구스타브 클림트>를 비롯해 러시아 국립 푸시킨 미술관 소장작품 중 17~18세기의 작품이 중심이 된 서양미술 거장전 <렘브란트를 만나다>와 인물사진의 거장 <유선 카시잔> 등, 대형전시 유치에 성공하여 연일 관람객들로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생활 속의 미술이라는 한가람미술관의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서울서예박물관

2009년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100주년, 청명 임창순 선생 작고 10주기, 원곡 김기승 선생 탄생 100주년 등 뜻 깊은 기념일이 많았던 해였다. 이에 맞춰 '예술과 사상', '글씨와 사람', '현대서예가 집중조명'이라는 전시 주제를 설정하였다. 10월 개막한 <안중근, 독립을 넘어 평화로>전에서는 국내외의 안 의사의 친필 유물을 100년 만에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안중근중앙평화학교>라는 특강도 개설하였다. 이 전시는 안중근 의사의 실천적 선비정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로 민족적 가치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청명 임창순 선생 작고 10주기를 기념한 <청명 연운-청명 임창순>전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청명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서예, 감성학, 글씨학, 경학, 서지학 등 청명 선생의 학예세계를 조망하였다. '원곡체(原谷體)'의 주인공인 원곡 김기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김기승 '발심대로'>전에서는 원곡체를 형성과정, 조형특질과 정신, 삶과 예술의 유기성 등으로 나누

어 소개하여 우리글의 뛰어난 조형미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우리글 자체 개발에도 많은 자국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8월에는 예술의전당과 전남 강진군이 공동으로 <방산 윤정기-다산학예, 방산에서 꽃피다>전을 다산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다산의 외손이자 수제자로 다산 학예를 계승·발전시킨 방산 윤정기의 생애와 학예세계를 다산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지역 간 문화교류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지난 10여 년 간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은 40년 동안의 한국 디자인 개념을 정리하고, 세계 유명디자인작품을 이론적 토대 위에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08년부터는 대중의 디자인 감수성을 개발하고 일상생활 속에 묻힐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 요소를 발굴하여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창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첫 번째 시도로 <까사리빙 디자인워크 2009>전을 개최, 신세대 작가가 디자인한 일상용품과 작품을 소개하였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전시공간도 옥외까지 확장하여 대중 친화적으로 변모하는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7월에 시작한 <미피의 즐거운 미술관>전도 디자인의 대중화라는 개념에 입각해 기획되었다. 어린이의 미적 감수성을 조기에 개발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디자인 개념을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성과 유흥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사)서울지역아동센터 협의회와 함께 100인의 유명인사와 아티스트가 동참하는 '어린이를 위한 책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대중 친화적 시도는 디자인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고 어린이에게는 사회공헌의 첫 줄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V-갤러리

2008년 12월, 기존 미술관보다 다양하고 대중적인 장르를 수용하는 'V-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전시로 디자이너 찰스임스의 작품, 사진, 어록을 소재로 한 <찰스임스>전을, 4월에는 사진작가 12명이 유명연예인을 담은 <가을신화>전을 개최하였다. 12월 <나미나라공화국>전에서는 남이섬을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만든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평범한 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꾸미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시민의 삶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라는 노력이 반영된 V-갤러리의 기획은 관객과 예술의전당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비타민 스테이션을 대중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Hangaram Art Museum

Hangaram Art Museum's most notable trend in planning for 2009 was to present contemporary art to the public as an entity that was easy-to-understand and fun. The first such attempt to achieve this was a series of contemporary pieces displayed in miniscule spaces throughout the SAC premises, one of them called <Red Mouse>. The audiences viewed the attempt as opening new possibilities for public art exhibits. The overriding theme of <2009 Art & Play>, aimed at the public's acquainting with contemporary art as an entity closer to their hearts, was 'Art in Super Stars.' The idea behind the planning was to explore the notion of Western super stars as interpreted by Korean audiences. In addition, the familiar images of super stars creating fine art helped bridge the gap between contemporary art and the public. In 2009, the theme of <Emerging Korean Artists in the World 2009>, introducing young Korean artists working around the world, was 'USB.' The program increased the connection between our young artists abroad and the local Korean art community. It featured new trends in the hybrid art formed between Korean art and world culture. SAC's hired programs for 2009 included: <Gustav Klimt in Korea>, with its first-ever glittering Asian tour; <Great Masters of European Painting from the State Pushkin Museum of Fine Arts>, featuring Rembrandt's works from the 17th and 18th Centuries; and <YOUSUF KARSH>, introducing the master portrait photographer's works. The successful hosting of massive and high-profile exhibitions filled the museum with crowds day after day, accomplishing the goal of introducing art in people's daily lives.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2009 was the year packed with significant anniversaries - the centennial of Patriot Jung-Geun Ahn's rise against the oppressiv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eath of renowned calligrapher Chang-Soon Im (aka Chungmyung); the centennial of the birth of another calligrapher Gi-Seung Kim (aka Wongok). To celebrate the events, the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organized this year's exhibitions: 'Art and Thinking,' 'Calligraphy and People,' and 'Special Review of Contemporary Calligraphers.' In October, <Exhibition 'Ahn Jung Geun'> unveiled some of the hand-written calligraphy writings of the revered patriot Ahn, collected from both local and overseas sources for the exhibition in 100 years. The show also presented a special lecture titled <Ahn Jung Geun and Dongyang Pyeonghwa School>, which delved into Ahn's activist-scholar mentality and his national values and patriotism. <Chungmyung Im Chang-Soon Exhibition> was staged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his passing. The exhibit featured some rather under-appreciated achievements that only recently had shed light on the world of his artistry and scholarly endeavors. These ranged from calligraphy, connoisseurship, epigraphy, Chinese classics and the research science of bibliography. <The Master of Korean Modern Calligraphy VII - The 10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Wongok, Kim Gi-Seung> was organized to commemorate the centennial of the calligraphy style known as "Wongok

style." The program consisted of an introduction of the style, the style's characteristics in form and the spirit it represented, including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art. Additionally, the master's artistry and originality was reviewed to have inspired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calligraphy. In August 2009, SAC and Gangin-gun, Jeollanam-do jointly launched the exhibition <Flourishing of Pangsan, Yun Jeong-gi of the Dasan School> at Dasan Memorial Center. The works of Jeong-Gi Yun, the grandchild and leading student of Dasan, Yak-Yong Jeong, the great Joseon Dynasty Confucian scholar, as well as the developer of Dasan's scholarly and calligraphy tradition, were re-visited through an exhibition on his life. It included scholarly and artistic interpretations of his relationship with the great Confucian master - an attempt at promoting inter-regional cultural exchange.

Hangaram Design Museum

For the past 10 years, Hangaram Design Museum focused on establishing the notion of Korean design over the past four decades by introducing the works of internationally-acclaimed designers. Since 2008, the focus has been shifting toward cultivating the public's sensitivity to design, all for the purpose of creating new design trends. The first of a series of such attempts was <2009 CASA Living Design Walk>, which showcased the new generation of design artists and their inventions. To ensure grea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s and their viewing public, the exhibition hall was extended to the outdoors. The show was reviewed as having shown the newer side of the innovative design museum. <Miffy at the Museum>, which started in July 2009, is another example of the museum's planning based on the notion of design popularization. This program emphasized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qualities that will help develop the children's esthetic sensitivity in their early years. Hangaram Design Museum also hosted a book-sharing event for children, including a social engagement program jointly conceived with the Korean Association the Community Child Center (KACCC). During this program, 100 celebrities and star artists participated to help develop our design culture, teaching children about the meaning of being socially engaged.

V-Gallery

In December 2008, 'V-Gallery' was inaugurated to show the embodiment of broader and more popular genres of art compared to that showcased by conventional art galleries. The institution's first-ever exhibition was <A Master of the 20th Century Design - Charles Eames>, featuring the works, photography and quotations by the famed designer. That was followed in April by <MYTH in the MIRROR> by 12 photographers. In December, <Naminara Republic branding Exhibition> was staged to introduce the ideas and designs that transformed Nami Island into a vibrant, lively location. V-Gallery's planning reflected its determination to take steps closer to the lives of ordinary citizens and was viewed to have made a huge contribution to the Vitamin Station, evolving into a more public-friendly space.



2009 교육사업

PROGRAMS OF ARTS EDUCATION

예술의전당 예술아카데미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우리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아름답게 가꿔주었다.
더불어 예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예술 애호가들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술아카데미 Fine Art Academy 66강좌 _ 수강생 2,183명

제2회 예술의전당 작가 스튜디오 展 The 2nd SAC Artists' Studio Exhibition | 2010.6 예정

어린이미술아카데미 Fine Art Academy for Children 39강좌 _ 수강생 1,391명

미술영재아카데미 평가전 Art Academy for the Gift Children Exhibition | 2010.2/26~2/28

음악아카데미 Music Academy 24강좌 _ 수강생 1,353명

음악아카데미 영재콘서트 Music Academy for Prodigy Concert | 11/7

서예아카데미 Calligraphy Academy 51강좌 _ 수강생 1,009명

제21기 서예교육평가전 The 21st calligraphy Academy Educational Evaluation Exhibition | 12/3~12/28

2009 교육사업

PROGRAMS OF ARTS EDUCATION

음악아카데미

1999년 11월, 음악영재아카데미로 시작한 음악아카데미는 2002년 성인을 위한 음악감상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심자에게 클래식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여 클래식 인구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콘서트홀과 연계된 수업내용과 장소는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09년 음악영재아카데미는 미래의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갈 음악영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5월과 11월, 두 차례의 오디션을 실시하여 영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피아노, 현악(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하프), 관악(플루트, 클라리넷)과 더불어 작곡부문의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이상적인 커리큘럼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결합하여 개인 레슨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음악영재가 가진 재능을 연주기량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운영시스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사를 공모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음악영재교육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음악감상아카데미는 성인을 대상으로 5개의 클래식 감상강좌와 2개의 오페라 강좌를 운영하여 음악애호가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특히 '오페라 살롱', '지휘로 듣는 클래식', '예술영화감상', '세계 오페라의 최선 트렌드', '올해 기억해야 할 음악가와 명곡' 등 흥미롭고 알찬 겨울특강을 신설하여 정원 대비 112% 등록율과 전년 대비 113%의 초과수익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전국 공연장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국민이 예술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술아카데미

성인미술아카데미는 일반시민들이 미술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그림만처음반>부터 <작가스튜디오반>까지 수채, 유화, 아크릴, 수묵, 판화, 드로잉, 크로키 등 미술의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론 강좌는 새로운 발상에 근거한 인문학강좌로 미술은 물론 문학, 역사, 철학

의 경계를 넘나드는 강좌로 구성하였다. 2009년에는 <열정적 예술사탐구>, <제대로 읽는 세계의 고전>, <세계 박물관 탐방>, <깊게 보는 세계의 미술>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문학강좌를 개설하여 예술애호가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술전시와 관람객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해 마련된 <갤러리 토크>를 비롯한 감상강좌는 연일 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2,183명의 예술애호가를 배출하였다. 성인미술아카데미는 예술현장과 연계된 살아있는 커리큘럼으로 시민들의 예술 실험으로 굳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린이미술아카데미

지난 1992년 우리 어린이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린이미술아카데미를 개원하였다. "어린이에게 꿈과 상상의 자유를"은 예술의전당 어린이아카데미가 지난 18년 동안 일관되게 추구한 이념으로 어린이 미술교육프로그램의 산실로서 매년 새로운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어린이가 다양한 미술세계를 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하였다. 특히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와 예의 조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둔 수업내용은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주고 있다. 또한 예술을 올바르게 이해시켜 논리성을 키워주어 어린이가 문화인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예아카데미

1988년 서울서예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출발한 서예아카데미는 2009년 21주년을 맞이하였다. 올해 51개 반을 개설하여 1,000여명의 서예 애호가에게 서도를 전파하여 서예인구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강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겨레의 정신이 바탕이 된 서도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009년에는 이론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시간도 다양하게 구성하여 서예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하였다. 12월에는 1년 동안 갖고 닦은 기예를 작품에 담아 각자의 개성과 작품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예교육평가전>을 개최하여 서예가의 자제와 나아가 방향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앞으로 서예아카데미는 우리의 전통상상과 문화를 담아내는 서예교육의 요체로서 그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

Music Academy

SAC's Music Academy, launched in November 1999 as the Music Academy for Talented Children, has continued to offer diverse and highly educational programs to patrons, especially with the opening of the Music Academy for Adults: Listening to the Music, an adult-oriented music appreciation program. The program is noticeable for broadening the audience for classical music by inspiring artistic interest in beginners. Its class materials and venue featuring collaboration between SAC and some world-renowned concert halls, offering an ideal educational environment. The 2009 Music Academy for Talented Children was launched to help "excavate" prodigies who will lead our nation's future classical music industry. Held in May and November, the auditions hand-pick talents in piano, strings (violin, cello, viola and harp), wind instruments (flute and clarinet) and music composition. By combining a much coveted curriculum and systematic operating system, the program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private lessons, nurturing niche talent possessed by prodigies. In 2009, the academy made various new attempts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operating system, creating a high-quality educational climate, such as publicly-recruiting instructors. The music appreciation academy targets adult students, with five classical music appreciation courses and two opera courses to address the cultural needs of classical music fans. The special winter-season lecture series, including 'Opera Salon,' 'Appreciating Classical Music through Conductors,' 'Artistic Film Appreciation,' 'The Latest Trends in World Opera,' and 'Musicians and Numbers of the Year,' offered particularly exciting and audience-friendly programs. This led to a 112 percent enrollment rate and a 113 percent profit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success brought on by the programs became a benchmarking case favored by many concert halls across the country.

Fine Art Academy

The Fine Art Academy for Adults offers our citizens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inner artist. Offering courses from beginner classes to studio-level sessions, the academy exposes students to a wide spectrum of fine arts. These include water color, oil painting, acrylic painting, Chinese ink drawing, print, drawing and sketching, croquis, etc. The academy's theory courses were composed of the

humanities with a fresh perspective, introducing fine art as well as comprehensive programs navigating the eclectic world of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In 2009, top-rated courses, such as <Passionate Search for Art History>, <The World's Classics Revisited>, <Tour Around the World's Museums>, and <Deep Probe into the World's Art>, were offered. They significantly raised the art-lovers' understanding and knowledge about humanities. In addition, <Gallery Talk>, a program designed to increase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between art exhibits and viewers Fine Art Academy courses drew sold-out responses on a daily basis. In 2009, the academy produced 2,183 new art-devotees, consolidating its standing as the citizens' art salon, with a vibrant curriculum.

Fine Art Academy for Children

The Fine Art Academy for Children was opened in 1992 to help cultivate children's creativity and sensitivity to art. "Empower Children with Dream and Imagination" was the coherent value pursued by the academy over the past 18 years. The program has been an incubator of children's fine art education programs, with an ingenious curriculum allowing children to experience the vast world of art and its various genres. Classes focus on creativity as the fundamental quality and achievement of harmony between art and technique, aiming to increase children's self-confidence in art. They also help the youngsters gain a more balanced view of art.

Calligraphy Academy

SAC's Calligraphy Academy first opened its door to the public in 1988 at the same time when the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was inaugurated. In 2009, when the academy celebrated its 21st anniversary, 51 classes were offered, teaching the art of calligraphy with some 1,000 devoted calligraphers. To satisfy the students' diverse needs and to practice the ethos of calligraphy education, the academy opened theory courses in 2009, offering more options in terms of class hours and structure. In December, <Calligraphy Academy Educational Evaluation Exhibition> was put together to show off the students' year-long mastering of the arts, offering the audience many opportunities to share varying degrees of style and calligraphy style. The event also re-established the attitude of and direction for calligraphers.

2009 대관사일

HIRED PROGRAMS

콘서트홀

서울시향의 유니세프 자선음악회

버니앤 요한스트라우스 오케스트라 & 신년음악회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마스터피스 시리즈

신년음악회 & 신년음악회

서울시향 신년음악회

서울시향 신년음악회

베를린방송교향악단 내한공연

서울 난탈리 뮤직 페스티벌

빅토리아 코랄 내한공연

제9회 핸드벨 정기연주

서울내셔널심포니 정기연주

경기필하모닉 102회 정기연주

클로아시안 가곡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칸타빌레 스페셜 리사이틀

4개의 피아노, 그 아름다운 어울림

회음플루오케스트라 정기연주

피아니스트 서해경 리사이틀-Night and Dream

국립합창단 125회 정기연주

발레탄인 세레나데

연인들을 위한 음악회

제주유작자일 페스티벌 실·백악 갈라콘서트

클림트가 신년음악회

윌리 피아노 리사이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뉴웨이브 시리즈

KBS교향악단 626회 정기연주

김현 피아노 리사이틀

스콜 클래식

2009 블루트 대중제

코리안심포니 정기연주

동북아평화음악회

비틀즈 김동규 초청음악회-이름다움산악에게

리처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콘서트 오페라 아슬라틀

서울내셔널심포니 창단15주년 특별연주

서울연극대상물 85회 정기연주

베드퍼드대우 내한공연

한국교향악단 창년음악회

소프라노 김은경의 봄의 소리

세종술로이스츠 공연

코리아M월드와 함께하는 영화음악 축제

명성황후 김원경과 함께하는 10회 메릴클래식

메조 소프라노 김현진 대위30주년 기념콘서트

프리오 칸테레 신년 대음악회

구리시향 33회 정기연주

KBS교향악단 627회 정기연주

유기 구미토코 최아미에이 콘서트

정기연주회

금나래와 함께하는 우라가쿠 첫 번째 콘서트

코리안심포니 기악연주

하이트 사가 2009년 기념-하이트 천지창조

스타콘서트

서울신보나에다 정기연주

신년음악회

제43회 오소틀필하모닉 정기연주

제42회 제43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고향 음악회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 628회 정기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비르투오조 시리즈

프라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

코리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신년음악회

로버 라트비치 앙상블 내한공연

느린 신도나나 내한공연

The Man's Choir 제2회 정기연주회

서울모데르타합창단 제72회 정기연주-아레 수난곡

봄의 향연-spring concert 2009

에프코나 카신 피아노 리사이틀

장영희 세계대위 40년 기념 콘서트

KBS교향악단 629회 정기연주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올대승려 20주년 성신여자대학교 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명 협주곡 시리즈

코리안심포니 정기연주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Great No.2협주곡

도전과 열정의 세계음악축제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아스터피스 시리즈

비리튼 필라미르 제로노프 첫 내한공연

창간25주년 기념 제44회서울대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리얼프록 내한공연

KBS교향악단 630회 정기연주

맨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자

서울시향살·백악축제

백건우와 김준희 김태현 김진숙과 함께

백건우와 김준희 김태현 김진숙과 함께

김정희와 친구들

국립합창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비르투오조 시리즈

KBS교향악단 631회 정기연주

불스아파트 정기연주

브라보라 정기연주

이름다운 우리노래

제7회 벨라보체 음악회

희망의 콘서트 오페라(모세)

제27회 자선음악회-그대 있음에

연세대학교대학교오케스트라 & 정기교향악연주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베틀비 이브라히미 음악회

헤비오페라

수원시향합창단 26주년 기념 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뉴웨이브 시리즈

국립합창단 126회 정기연주

2009 서울국제음악제

2009 서울국제음악제

하이트 사가 2009년 기념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KNUA 정기연주회

제31회 이브라히미의 전설 '멘디비'내한공연

한국페스티벌앙상블 47회 정기연주

코리아M월드

서울신보나에다 정기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비르투오조 시리즈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74회 정기연주

코리안합창합창단 제40회 정기연주

소스메가기념합창단 정기연주회

서울필 정기연주

강남심포니 30회 정기연주

한국오라토리오상 25회 정기연주

말레-니콜로 심포니 제4회 정기연주회

소라알필하모닉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서울대 음대 관현악 정기연주

서울시향 앙상블

앙상블 디토 스페셜 콘서트

제43회 오소틀필하모닉 정기연주

제42회 제43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제41회 제42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제40회 제41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제39회 제40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제38회 제39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제37회 제38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제36회 제37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제35회 제36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제34회 제35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제33회 제34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제32회 제33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제31회 제32회 서울시향 정기연주

디토페스티벌-페달리콘서트

디토페스티벌-스페셜콘서트

앙상블 디토 시즌3

디토페스티벌-디토 갈라콘서트

뮤즈앤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라산간 내쇼닉 오케스트라

서울모데르타합창단 제74회 정기연주-비르투오조 시리즈

예향악회 정기연주회

기틀레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제2회 합창단 음악이있는이름 정기연주회

환경음악회

KBS교향악단 633회 정기연주

이 마에스트로 제 4회 정기연주회

코리아나쉬 블루트 오케스트라 7회 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 634회 정기연주회

클래식과 열정의 세계음악축제

금나래의 아이기가 있는 메릴클래식

강남심포니 40회 정기연주회

코리안심포니 기악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명 협주곡 시리즈

스콜클래식

제40회 김동규 초청음악회

금나래의 청신년 해설음악회

MOS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년음악회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서울시향 청신년 음악회-맨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서울신보나에다 정기연주회

베토벤필하모닉스

코리아M월드 청신년음악회

동아일보 청신년음악회

정명준과 함께하는 교육포그림

제4회 여름향악 청신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

광정호 하프와이

아시아 청년관현악단(KAYO)

연락합창단

비츠호의 리브레타

72의 음악인들

제40회 Focus 타악기앙상블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 635회 정기연주회

skuna-클래식 사발을 만다

서울시향청신년2주년 기념음악회

임창진 팝스 콘서트

기타들의 클래식

서울시립교향악단

SPO 이현숙 & Bar 이재환 듀오 콘서트

코리안심포니 정기연주회

뮤지컬 파파로티 추모기

과천시향(가이데오)오케스트라 & 제2회 정기연주회

아쿠스틱과 함께한 공연

개교 63주년 기념 콘서트 25회 정기연주회

제2회 우라비니합창단 정기연주회

창작 관현악 축제명동국악

클로버드림 제2 박람회 내한공연

2009 푸른빛생생물 사발의 음악회

서울예고 오소오케스트라 청신년 음악회

마산시립교향악단 전국 순회음악회

팔레트 최고의 하이라이트 '다 트 데스' 내한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명 협주곡 시리즈

제41회 콘서트

2009 국제 음악인 작품상 본선연주 및 시상식

한양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영혼의 울림, 우리의 음악

유림 오페라단 추경자 초청 갈라 콘서트

제42회 오라토리오 & 초이스 초이스 두 가정의 만남

서울시립교향악단 기악음악회

오페라 콘서트 '가릴리'와 루스티기나 & 팔라치

KBS교향악단 636회 정기연주회

코리아나쉬 슈타트 필하모닉 리사이틀

주제음악대학교 추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리미어앙상블 제 11회 정기연주회

민 필하모닉 내한공연

피아니스트 이현숙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국 시리즈 I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비르투오조 시리즈

2009 신작가곡음악회-우리의 우리노래

6/27 크레다

6/27 크레다

6/28 크레다

6/28 크레다

6/29 유익 앤 시몬드

6/30 (주)아스티미디어

7/2 서울모데르타합창단

7/4 음연

7/4 평화방송

7/5 합창단음악이있는이름

7/7 서울내셔널심포니

7/9 KBS/78-2243

7/10 이 마에스트로/드림필하모닉

7/23 코리아필처

7/24 한국방송공사(KBS)

7/25 (사)베니토 음악인연합회

7/26 유라시안코퍼레이션

7/28 강남문화재단

7/29 코리안심포니

7/31 (사)서울시립교향악단

8/3 스테이지원

8/4 pmgkorea

8/6 경기도문화의전당

8/10 수원문화재단

8/12 이흥대문오케스트라

8/13 서울신문사

8/14 서울신도나에다

8/18 (사)한국방송공사경남연합회

8/19 동아일보사

8/20 동아일보사

8/21 (사)서울시립교향악단

8/22 예향악회

8/23 스테이지원

8/23 이트콘서트

8/24 주지문화재단

8/25 크레다

8/26 (주)씨아이

8/27 코리아나에다

8/28 한국방송공사(KBS)

8/29 코리아나에다

8/30 (사)서울시향

8/31 본예향

9/1 (주)서울시향

9/2 아시아신문사

9/3 프리마노/중앙대학교

9/4 코리안심포니

9/5 스테이지원

9/5 과천시

9/6 삼미아트센터

9/6 주지문화재단

9/7 예향악회

9/10 공연예술프로젝트/대동문화재단

9/11 공연예술프로젝트/대동문화재단

9/13 주지문화재단

9/13 크레다

9/14 유익

9/15 음연

9/16 브라보라

9/17 (사)서울시립교향악단

9/18 (주)아스티미디어

9/19 한양대학교

9/20 크레다

9/21 경기도문화의전당

9/22 대동문화재단

9/23 (사)서울시립교향악단

9/24 (사)한양대학교

9/25 KBS교향악단

9/27 (주)베니토

9/28 서울대학교

9/28 한국방송공사(KBS)

9/29 크레다

9/30 유익

10/1 (사)서울시립교향악단

10/5 (사)지연사

서울시향교향악단 제25회 정기연주회

개교 91주년 기념 종합대 음악대학 정기연주회

2009 이시호 사가기 전국무대

막심 크라비치 리사이틀

뉴욕 필하모닉 내한공연

뉴욕 필하모닉 내한공연

10주년기념 한국합창대제전

10주년기념 한국합창대제전

수원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인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제44주년 경찰의 날 기념 경찰경향음악회 정기연주회

진문숙의 이리노 노래 시리즈

10/23 시호오페라/영음예술

10/24 예향악회

10/24 SCP Inc.

서울대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피호영 음악인생 40주년 기념 연주회
한미친선 송년음악회
열린 그라운드 내한공연
뮤직멘탈 2009 송년음악회
서울오페타합창단 제76회 정기연주-싱어를 매시아
사랑의 바이올린 리시아를
KBS교향악단 639회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재가 데뷔 리시아를
소노펠라게카관가님 송년콘서트
송년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마에스트로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마스터피스 시리즈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
유기 구라모토 크리스마스 콘서트
이투마콘서트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우리음악 송년음악회
2009 그랜드피아노콘서트
사랑의 바이올린 리시아를
솔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마스터피스 시리즈

리시아들출

김정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소프라노 사미현 독창회
박지현 플루트 독주회
Lime Quartet 정기연주회
전혜련 피아노 독주회
김수연 귀국 첼로 독주회
대한민국 작곡대전
목관5중주와 해설이있는 실내악이오기
김강성의 피아노 독주회
이미지 플루트 독주회-공감과 열정-
임영진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장주의 클라리넷 독주회
윤희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조은아 피아노 독주회
문지영 귀국 오보에 독주회
현소영 첼로 독주회
대한민국 작곡대전
정유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
김혜련 피아노 독주회
김현정 피아노 독주회
김유아 피아노 독주회
강우진 첼로 독주회
이태정 바이올린 독주회
최정은 귀국 플루트 독주회
이현정 피아노 독주회
장남빌 바이올린 독주회
이정화 바이올린 독주회
오지현 피아노 독주회
코리아나첼로바이류크소사이어티 36회 정기연주회
이지현 피아노 독주회
이홍경 비올라 독주회
현아5중주단 인 정기연주회
한국피아노학회 우수선생음악회
한국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공경미 피아노 독주회
송성준 피아노 독주회
송재명 바이올린 독주회
최정환 타악기 독주회
정유정 바이올린 독주회
김형선 바이올린 독주회
권민도 플루트 독주회
최유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비올라 4중주 '괴트라브레' 정기연주회
The Bell String Quartet 제7회 정기연주회
서울목관5중주 25회 정기연주회
대한민국작곡대전
수영트로오 정기연주회
독일파퓰라크림악단대하 동문음악회
윤지현 오보에 독주회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43회 정기연주회

송정민 클라리넷 독주회
피아니스트 강지은의 '베토벤의 송고한 사랑'
김윤정 바이올린 독주회
이준희 바순 독주회
제29회 협스트링 앙상블 정기연주회
한가정 피아노 독주회
이혜진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VI
오보에 앙상블 'The Pin' 정기연주회
여름목관5중주단-나무에서 숲으로3
인영주 플루트 독주회
김수현 귀국 플루트 독주회
2세대 음악축제
김혜란 바이올린 독주회
서울튜더앙상블 제47회 정기연주회
문연옥 피아노 독주회
한국목관5중주단-나무에서 숲으로3
김남재 독일 바이마르 음악학부
빈트루오 정기 연주회
메조소프라노 문혜경 독창회
세종목관첼로앙상블 정기연주회
윤소연 바이올린 독주회
2009 아시아 현대음악제 실내악 연주회
유시연 테마콘서트 VIII
제20회 (사하에라타) 서울 첼로 앙상블 정기연주회
2009 TMF 앙상블-필라 프로젝트
전수진 피아노 독주회
이윤영 플루트 독주회
곽소빈 바순 귀국 독주회
코로넷 21 초청연주회
대한민국 작곡대전
태인오 한 제7회 정기연주회
이창형 베이스 독주회
문복선 플루트 독주회
별가예 음악인의 밤
손정애 피아노 독주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3/5 (주)유연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언어영 피아노 독주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이은지 피아노 독주회
이혜선 클라리넷독주회
이소영 플루트 독주회
장정호 바이올린 독주회
창악회(창악회) 정기연주회
창악회(창악회) 정기연주회
프랑소음악 연구회 정기 연주회
조영은 피아노 독주회
한국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이석우 기타 리시아를
대전트로오 정기연주회
첼리스트 우지현과 함께 떠나는 아른이 음악여행
이성은 피아노 독주회
아쿠아-스 실내악단 27회 정기연주회
이산정 바이올린독주회
박재만 플루트 독주회
김경민 바이올린 독주회
484 색소폰앙상블 창단연주
앙상블 유림 창단 15주년 기념 음악회
카로스타악기앙상블과 함께 떠나는 라듬의 매력2
트로오 파리아디 정기연주회
코리아나첼로바이류크소사이어티 37회 정기연주회
대한민국작곡대전
김은아 나만의 듀오 트레저
3/10 코리아나
서울색소폰코르넷 제4회 정기연주회
소프라노 김은영 독창회
이자현과 함께 떠나는 유림여행
3/17 무직블람머
프랑스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박노는 첼로 독주회

3/15 유직블람머
3/15 다뮤직 코리아첼러
3/16 네오클래식
3/17 (주)유연
3/18 예인예술기획
3/19 (주)유연
3/20 (주)유연
이혜진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VI
오보에 앙상블 'The Pin' 정기연주회
3/21 (주)프로이트
김주현 플루트 독주회
3/22 무직블람머
3/22 플루트 상
김혜라 피아노 독주회
3/23 네오클래식
3/24 사한국제스타필앙상블
김재현 바이올린 독주회
3/25 지음기획
3/26 서울튜더앙상블
3/27 (주)부앙아트
3/28 음악자살
3/28 서울상아즈소사이어티
3/29 (주)부앙아트
김호정 비올라 다 강바 독주회
3/30 서울오라토리오 콘서트블라망 세
3/31 서울예술기획
3/31 네오클래식
4/1 아시아작곡가연맹 한국위원회
4/2 (주)유연
4/3 예인예술기획
4/4 TMF앙상블
4/5 예인예술기획
4/6 예인예술기획
김재미 피아노 독주회
4/7 코리아나
4/8 예인예술기획
4/9 예인예술기획
4/9 (주)프로이트
4/10 예인예술기획
4/12 예인예술기획
4/12 마스터미디어
4/13 스케이피그
4/14 (주)프로이트
4/15 예인예술기획
4/16 동아일보사
4/17 (주)유연
4/18 동아일보사
4/19 (주)부앙아트
4/20 동아일보사
4/21 동아일보사
4/22 동아일보사
4/23 동아일보사
4/24 (주)부앙아트
4/25 예인예술기획
4/26 예인예술기획
4/26 코리아첼러
4/28 예인예술기획
4/29 예인예술기획
4/30 예인예술기획
5/1 (주)부앙아트
5/2 지음기획
5/2 (주)부앙아트
5/3 예인예술기획
5/3 대전지간타
5/4 네오클래식
5/5 (주)부앙아트
5/6 아쿠아-스 실내악단
5/7 행사공연예술기획
5/8 예인예술기획
5/9 코리아나
5/9 (주)부앙아트
5/10 유림기획
5/10 카로스타악기앙상블
5/11 예인예술기획
5/12 (주)마스터미디어
5/13 예인예술기획
5/14 예인예술기획
5/15 미래연악회
5/16 서울 색소폰 코르넷
5/16 서울상아즈소사이어티
5/17 지음기획
5/17 무직블람머
5/18 마스터미디어

최은정 플루트 독주회
R Strauss 사가20주년 기념음악회 "그대의 노래가 들릴 때"
2009 TMF 앙상블 연주회 시리즈 3-바이올리니스트 함지민
유혜정 피아노 독주회
하은 피아노 독주회
노재아 피아노 독주회
서울예술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한혜수 하프 독주회
김주현 플루트 독주회
오혜송 바이올린 독주회
김혜라 피아노 독주회
OPUS130-701 제1회 정기작곡발표회
5/29 위유직
5/30 서울상아즈소사이어티
5/31 서울튜더앙상블
5/31 (주)부앙아트
Kim s Trio 정기연주회
6/1 코리아나
6/2 코리아나
6/3 마스터미디어
6/4 네오클래식
6/5 지음기획
6/6 예인예술기획
6/7 (주)유연
6/7 프로젝트
6/8 예인예술기획
6/8 예인예술기획
대한민국 작곡대전
김재미 피아노 독주회
이준희 바순 독주회
6/12 (주)유연
6/13 프로젝트
6/13 세실예술기획
6/14 (주)부앙아트
6/15 예인예술기획
김지선양진희 듀오 리시아를
6/18 (주)유연
6/20 (주)유연
6/20 예인예술기획
6/21 예인예술기획
6/21 SGM공연기획
6/22 예인예술기획
6/23 예인예술기획
6/24 예인예술기획
6/25 코리아나
6/26 (주)부앙아트
6/27 네오클래식
6/27 첼라비츠
6/28 콘서트디자인
6/28 예인예술기획
6/29 예인예술기획
6/30 네오클래식
7/1 예인예술기획
7/3 코리아첼러
7/4 (주)유연
7/5 예인예술기획
7/5 네오클래식 매니지먼트
7/6 예인예술기획
7/7 행사
7/8 예인예술기획
7/9 예인예술기획
7/10 국립합창단
7/18 예인예술기획
7/19 피아노포르테
7/19 (주)유연
7/20 예인예술기획
7/22 행사
7/23 (주)유연
7/24 윤혜정
7/24 (주)유연
7/25 코리아나매니지먼트
7/25 음악자살
7/26 서울첼로앙상블
7/26 (주)유연
7/27 무직블람머
7/28 네오클래식 매니지먼트
7/29 코리아나매니지먼트
7/30 스테이지

상재정 귀국 비올라 독주회
백은경 피아노 독주회
김사내 첼로 독주회 '첼로와 해금의 만남'
김신희 바이올린 독주회
김수진 리코디 독주회
권해진 귀국 플루트 독주회
제7회 텍사스 주립대학교 동문 음악회
전신아 귀국 플루트 독주회
부암피아노소사이어티 청소년 음악회
빈트루오 청소년 음악회
홍수연 클라리넷 독주회
최혜성 플루트 독주회
Ensemble DIAPASON 정기연주회
목관5중주와 듣는 친한친 클래식
권수아 유지수 듀오 연주회
코리아나 첼로 유직 지음 소사이어티 제38회 정기연주회
청소년 음악회-NEC 동문 첼로 앙상블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제23회 정기연주회
윤민규 오보에 독주회
라플루타시리 정기연주회
이혜련 피아노 독주회
서울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선현경 바이올린 독주회
소리록 창립20주년 기념 음악회
심윤선 피아노 독주회
김영광 피아노 액서 리시아를
이상주 피아노 독주회
6/12 (주)유연
서울 플루트 솔로이스츠 제3회 정기연주회
우정은 바이올린 독주회
제1회 코리아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최희석 드림본 귀국 독주회
임상의 피아노 독주회
김유정 바이올린 독주회
조현수 피아노 독주회
임영진 클라리넷 독주회
그리온 김동희-정영민 선생 추모음악회
'Win' 첼로 배기정 & 오보에 조혜연 듀오 연주회
제7회 솔로이스츠즈 정기연주회
소프라노 김수진 독창회
소프라노 이은혜 독창회
오보아스트 이윤정 리시아를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대전
홍희정 바이올린 독주회
연보영 피아노 독주회
신방송 타악기 독주회
한국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전신아 첼로 독주회
클라리넷 연주회, 타악기, 타다요시 듀오
이민호 바순 귀국 독주회
태-나 성영규 독창회
지음클라리넷앙상블
허희정 바이올린 독주회
하은무 바이올린 독주회
강나영 피아노 독주회
부찬필 & 서울대예술 Accento 2009
김문정 피아노 독주회
송정민 클라리넷 독주회-20세기의 프랑스음악의 재조명
체코음악 연주
제30회 협스트링 앙상블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바트릭 오번 초청 독주회
김수연 바이올린 독주회
김정민 (Suren Bagratuni) 듀오 연주회
클라리니스트 계획정 리시아를
신우연 플루트 독주회
현수아 바이올린 독주회
제타리 제타리앙상블 연주회
아츠 페스티벌 대관
박수진 피아노 독주회
김민희 바이올린 독주회
김정현 첼로 독주회
월간 피아노음악 초청 청운 피아노 독주회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대전
사계속 교수 동문음악회
피호영 바이올린 독주회

7/31 프로젝트
8/1 예인예술기획
8/1 (주)유연
8/2 예인예술기획
8/2 예인예술기획
8/3 예인예술기획
8/4 예인예술기획
8/5 예인예술기획
8/6 (주)부앙아트
8/7 (주)부앙아트
8/8 음악춘추사
8/8 플루트상
8/9 예인예술기획
8/9 예인예술기획
8/17 (주)유연
8/18 마스터미디어
8/19 지음기획
8/20 아울로스목관5중주
8/21 예인예술기획
8/22 예인예술기획
8/23 지음기획
8/23 마스터미디어
8/24 예인예술기획
8/25 예인예술기획
8/26 예인예술기획
8/27 피아노포르테
8/28 음악교육신문
8/29 예인예술기획
8/29 플루트하우스
8/30 마스터미디어
8/30 코리아나매니지먼트
8/31 위유직
9/1 네오클래식 매니지먼트
9/2 (주)프로이트
9/3 (주)부앙아트
9/4 예인예술기획
9/5 예인예술기획
9/5 사현석
9/6 콘서트디자인
9/6 예인예술기획
9/7 스테이지
9/8 디 스톱프
9/9 예인예술기획
9/10 (주)프로이트
9/11 지음기획
9/12 지음기획
9/12 한국피아노학회
9/13 매니지먼트 예진
9/13 아이덴티
9/14 코리아나매니지먼트
9/15 서울오라토리오
9/16 예인예술기획
9/17 세실예술기획
9/18 예인예술기획
9/19 (주)유연
9/19 임한정
9/20 다뮤직 코리아첼러
9/20 (주)유연
9/21 (주)유연
9/22 예인예술기획
9/23 음악춘추사
9/24 마스터미디어
9/25 (주)유연
9/26 디 스톱프
9/26 예인예술기획
9/27 예인예술기획
9/27 지음기획
9/28 강석희음악연구소
9/29 (주)유연
9/30 예인예술기획
10/1 무직블람머
10/6 (주)유연
10/7 예인예술기획
10/8 지음기획
10/9 (주)유연

작악의 제4회 작품발표회	10/70	주프로이트
트리오 피로베 창단연주회	10/70	영음예술기획
서울 윤이상 앙상블 정기연주	10/11	피아노포터
2Pianos, Drums채즈음악회	10/11	윤이상평화재단
한은 기타 리사이틀	10/12	디자인가타
한국원로교향악단	10/13	창환
스노리더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10/14	부강아트
TIMF앙상블 연주자 시리즈 5-원수연 피아노 독주회	10/15	TIMF앙상블
이광숙 피아노 독주회	10/16	(주)유연
김유지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0/17	코리아-에네-자먼트
이미피에 클라리넷 콘서트	10/17	예안예술기획
김현주 피아노 독주회	10/18	유양아트홀
송보영 첼로 독주회	10/18	(주)유연
태너 김성민 독창회	10/19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앙상블 브리즈마 제1회 정기연주회	10/20	(주)프로이트
조창환 트럼펫 독주회	10/20	작전사운드
정재훈 첼로 독주회	10/22	헤카공연예술기획
김영희 교수 동음음악회	10/23	(주)유연
정소현 피아노 독주회	10/24	부강아트
한국독립악단악기 제28회 정기연주회	10/24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The First woodwind 제2회 정기연주회	10/25	한국체코니합회
일육빈 교수님 음악회	10/25	코리아-에네-자먼트
최한빈 바이올린 독주회	10/26	(주)프로이트
제3회 범 음악제	10/27	예안예술기획
제3회 범 음악제	10/28	예안예술기획
제3회 범 음악제	10/29	예안예술기획
제3회 범 음악제	10/30	예안예술기획
오보에 앙상블 "The Pir" 제4회 정기연주회	10/31	(주)프로이트
제3회 범 음악제	10/31	예안예술기획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제39회 정기연주회	11/1	마스트미디어
최경림의 호른시리즈 제 1번에 이어가-20세기 음악속의 호른	11/1	유양아트홀
김한재 피아노 독주회	11/2	(주)유연
여름 목관5중주전 (나무에서 숲으로시리즈)	11/3	무직클림버
제10회 아바타무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11/4	예안예술기획
김문정 피아노 독주회	11/5	(주)유연
이석준 호른 독주회	11/6	예안예술기획
순호성 클라리넷 독주회	11/8	영음예술기획
제2회 대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음악회	11/8	예안예술기획
박성미 트럼펫 독주회	11/9	세상예술기획
김현곤 클라리넷 독주회	11/9	지음기획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대전	11/11	예안예술기획
제33회 프랑켄트 정기연주회	11/12	예안예술기획
이훈송 오보에 독주회	11/13	예안예술기획
리해진 피아노 독주회	11/14	황재현
김수현 황재현 피아노 듀오연주회	11/14	영음예술기획
허재영 튜바 독주회	11/15	(주)프로이트
미래연희 34회 작품발표회	11/15	미래연희
노인경 첼로 독주회	11/16	헤카공연예술기획
프로뮤직 제6회 정기연주회	11/17	오를레시 메니지먼트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	11/18	영음예술기획
제정원 피아노 독주회	11/19	(주)유연
오순화 비올라 독주회	11/20	유직클림버
양진희 피아노 독주회	11/21	네오클래식 메니지먼트
임영민 첼로 독주회	11/21	예안예술기획
제8회 엘로스창작작품발표회	11/22	멜로스
남수아 첼로 독주회	11/22	예안예술기획
박의정 플루트 독주회	11/23	예진
소진선 호른 독주회	11/24	소진선
하늬 챔버오케스트라	11/25	(주)유연
국립합창단 기복공연 (지휘자 대위곡서식)	11/26	국립합창단
신명호최치우의 다이너미 재즈콘서트	11/27	한국창작악
스프링스 이준희 독창회	11/28	지음레프
앙상블 다비드 정기연주회	11/28	스카이치원
말레니앙시모나제타 정기연주회	11/29	말레니앙시모나제타
김구경 피아노 독주회	11/29	영음예술기획
한현실 피아노 독주회	11/30	(주)유연
황송현 첼로 독주회	12/1	예안예술기획
첼리스트 김혜은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회 2	12/2	크레디아
연세신시모나제타 51회 정기연주회	12/3	마스트미디어
정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12/4	세상예술기획
정수안 플루트 독주회	12/5	예안예술기획
이재은 첼로 독주회	12/5	예안예술기획
서울튜타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12/6	서울튜타앙상블
이휘노스 살바딘29회 정기연주회	12/6	이휘노스살바딘단
안혜소 비올라 독주회	12/7	헤카공연예술기획

문수형 바이올린 독주회	12/8	예안예술기획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대전	12/9	예안예술기획
제28회 서울악기제미앙상블 정기연주회	12/10	코리아-에네-자먼트
동 앙상블 제27회 정기연주회	12/11	세상예술기획
최성민 첼로 독주회	12/12	(주)유연
바이올린 장남일 & 첼로유요	12/12	예안예술기획
올라비올라 정기연주회	12/13	유직클림버
세종문화재단앙상블 2009 정기연주회	12/14	예안예술기획
사수민 비올라 독주회	12/14	예안예술기획
이산아 첼로 독주회	12/15	예안예술기획
아니마 펄렛 창단연주회	12/16	예안예술기획
왕해진 첼로 독주회	12/17	마스트미디어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12/18	현대음악앙상블
한국독립악단연구회 송년음악회	12/19	플루트하우스
장유미 플루트 독주회	12/19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김지현 피아노 독주회	12/20	예안예술기획
제4회 금파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12/20	서울튜타앙상블
앙상블 피리 연주회	12/21	코리아-에네-자먼트
제4회 클라리넷5중주 정기연주회	12/22	예안예술기획
제22회 (사)기타레타 서울앙상블 송년음악회	12/23	예안예술기획
서울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	12/24	서울챔버앙상블
서울시모나이 솔리스트 정기연주회	12/25	서울시모나이 솔리스트
앙상블 분다바순 정기연주회	12/27	음악춘추사
김정은 피아노 독주회	12/27	영음예술기획
김영진 귀국 오보에 독주회	12/28	영음예술기획
2009 음악춘추 우수신인대위연주회	12/29	음악춘추사
정성희 피아노 독주회	12/30	(주)유연
피아니스트 김경현 리사이틀	12/31	다스튜디오

오페라극장

신대열라	3/20~3/24	국립발레단
스노우맨	3/28~4/12	크레디아
라 바타르	4/17~4/26	유니버설발레단
파멜리오	5/7~5/10	무악오페라단
라보레	5/28~5/30	글로리아오페라단
세계발레스타 2009	6/4~6/5	중앙일보
노마드	6/25~6/28	국립오페라단
로미오와 줄리엣	7/4~8/2	마스트엔터테인먼트
일 뱀노기	8/7~8/23	SM 엔터테인먼트
차이코프스키	9/9~9/13	국립발레단
사랑의 묘약	9/26~9/30	국립오페라단
마술피리	10/8~10/11	김하차베세드오페라단
투란도트	10/15~10/18	솔로페라단
7개월레아미 루스티카나 & 팔라치	10/24~10/26	예술기획 파울로
캐슬린 바틀	10/31	라이브엔터테인먼트
카르멘	11/5~11/8	CSB7독교방송
왕자호동	11/18~11/22	국립발레단

토월극장

창월이 재수강 "열두기다"	1/31~2/1	한국서도소리연구보존회
순재자	2/16~2/18	웃는돌
한바다에서	2/24~3/22	극단 유
승여(勝餘)의 하늘	3/25~3/26	작사부무단
김영희 무트댄스 정기공연	4/4~4/5	김영희 무트댄스
해설이 있는 빌레	4/10~4/11	국립발레단
제4회 서울국제무용공쿠르	4/29~5/1	국제무용아카데미(선조)
기복무용극 연희와 테디	5/5~5/7	한국독립악단
2009 서울연극제 파키스의 여인들	5/15~4/26	서울연극협회
한대무용단 탐 제4회 솔로공연	4/11~5/12	한대무용단 탐
바람의 나라	6/10~6/30	서울예술단
서울국제무용공쿠르	7/1~7/6	서울국제문화교류회
나비부인	7/17~7/25	국립오페라단
2009 우수레퍼토리 공연 (想夢)	9/9	김영숙는취우용단
남미환상과 상상동물이	9/11	이우리과레아
김영희 무트댄스 워크샵 퍼포먼스	9/13~9/14	김영희 무트댄스
마리온에트 인형극 "모짜르트의 마술피리"	9/18~9/20	파울로
안락의 여정	9/26~10/5	RWC
해설이 있는 빌레	10/9~10/10	국립발레단
제2회 서울세계무용축제	10/15~10/21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2009 서울국제 공연예술제	10/26~11/1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파피요	11/5~11/16	신시뮤지컬 컴퍼니

문조반니
해설이 있는 빌레
퀴즈쇼

자유소극장

괴방 괴방	1/22~3/1	극단 시디리
타이포스트	3/5~3/11	극단 김금지
아비다 콘서트	3/13~3/15	블랙스
윈터블레이 콘서트	3/17~3/18	블랙스
이슬렐 콘서트	3/19~3/22	블랙스
이태상 댄스포레트 "코블스"	3/26~3/27	공연기획 MCT
봄의 재탄	3/30~3/31	댄스퍼커스김효진
상상성	4/5~5/3	서울유지컬컴퍼니
2009 서울연극제 (서울연극제 30주년)	5/7~5/18	서울연극협회
해무	5/22~5/31	극단 연우대
미디어 퍼포먼스	6/5~6/13	김향서
국수로 춤 찾은것	6/20	국수로 무용단
원터블레이의 꿈	6/27~8/2	극단 한양레퍼토리
판소리 애향그림을 엮다	8/6~8/16	국악 뮤지컬 타루
가림과 댄스 컴퍼니 정기공연	9/10~9/11	가림과 댄스 컴퍼니
봄의 재탄	9/15~9/16	플레너 코리아
백옥의 요정	9/19~9/27	극단 마추
궁형의 도전	10/1~10/2	포스트 예고 무용단
지구엔지니어의 종	10/7~10/8	지구엔지니어
서울세계무용축제	10/11~10/22	국제무용협회
도살장의 시간	10/27~11/8	극단 물리
사색공간	11/7	류무용단
서울국제뮤지컬페스티벌	11/29~12/3	한국전지음악협회
공간의 공간	12/6~12/7	최재선 댄스컴퍼니
MEMO 창작오페라	12/17~12/20	국립오페라단
노영심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3~12/26	라이브 플러스
명규 포 더 뮤직	12/28~12/31	라이브 플러스

한가람미술관

세원미술 감상전-켈버르트를 만나다	08/11~7/26(주)에스비메
구스타프 클림트전	2/2~5/15 (주)로터에이치디
인물 사진의 가장 카쉬런	3/3~5/8 (주)뉴벤치엔터테인먼트
김봉규 사진전	4/10~4/26 김봉규
월성 김두환전	4/28~5/5 진고미술갤러리
김준희 윤주철의 도자전	5/12~5/19 윤주철
공성환 개인전	5/8~5/18 공성환
이트루를, 한국구상대제전김재진 전시장 가는 날	5/22~6/4 이트루서울조작위원회
한국현대미술제 "YCAF"	6/7~6/16 갤러리 박
블루뮤지아시	6/20~6/26 경향신문사
제1회 중앙미술대전	7/1~7/9 (주)중앙일보문화사업
중앙미술대전 역대 수상 작가전	7/1~7/9 (주)중앙일보문화사업
명장 임형백 전시전	7/1~7/8 임형백
한국현대미술의 정기전	7/1~7/8 한국현대미술협회
한국현대미술 작가전-2009 오디세이	7/14~8/29 (주)중앙일보문화사업
제4회 미술세계	8/22~8/29 팔간 미술세계
2009 KPAM '대한미국미술제'	9/3~9/7 한국전협회미술협회
SIPA 2009	9/12~9/15 한국문화재단사진전총협회
한국미술협회 정기 회관전	9/23~9/30 한국미술협회
장안 고현전	9/22~9/30 장 안
한국의학 현대적 변용전	10/7~10/11 동양화재단추진위원회
마르코 국제아트페어	10/15~10/25 마르코조직위원회
서울 현대미술의 상향전	10/29~11/6 서울미술협회
한국 미술의 빛전	11/11~11/19 한국미술의빛문명위원회
윤우하를 2009	11/23~11/29 중앙대학교예술대학
나경태전	12/2~12/9 나경태
세바퀴의 공간정신	12/2~12/9 권민익
모래에서 파사조까지	12/16~10/3/28 조선일보
색채의 연금술사 무오전	12/15~10/3/28(주)슬림,서울신문

서울시예술품관

제20회 대한민국서예미술대전	2/9~2/15	(사)한국서회교유협회
제4회 대한민국서예미술대전	2/16~2/22	(사)한국서예협회
제4회 서예문인회	2/23~3/1	팔간미술협회
노정 윤두식사진	3/2~3/8	윤두식

한국서예협회 제7회 초대작가전	3/9~3/15	(사)한국서예협회
제2회 신사원전, 이윤국사예대전	3/16~3/22	(사)주부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전	3/23~3/29	한국미술협회서예분과
제10회 세종한글서예공모대전	3/30~4/5	세종한글문화연구원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 및 국제전	4/6~4/12	(사)한국서예협회
제4회 한국문인회합창전	4/15~4/21	(사)한국문인회합창
제4회 서울서예대전	4/22~4/30	(사)한국서예협회 서울지회
숙송 이충호 사제전 (도덕경과 필묵의 대화)	5/5~5/11	이충호
제4회 대한민국 서예문인회대전	5/12~5/18	팔간서예문인회
제5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5/19~5/25	(사)한국서예협회
제1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5/26~6/1	(사)한국서예협회
2009년 제2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6/11~6/19	(사)한국미술협회
2009년 제2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회부문	6/20~6/28	(사)한국미술협회
서예정신 2009 서울전-현대사와 서예	6/29~7/9	필봉기획
국립미술협회 초대작가전	8/20~8/26	(사)국립미술협회
제2회 국제서예가협회전	8/27~9/6	(사)국제서예가협회
2009 시조로 꾸미는 아름다운 한글 서예전	9/7~9/13	(사)한국서학회
산돌 조용선 한글서예발차기	9/14~9/20	조용선
한국서예대표작가 초대전	9/21~9/27	(사)한국서예협회
제7회 대한민국서예협회	9/28~10/5	(사)한국서예협회
제48회 김달환한글서전	10/6~10/12	(사)김달환한글서회
2009 한글서예대회제	10/13~10/19	팔간서예문인회
동우 최돈상 서예전	10/20~10/26	최돈상
아름다운 한글 서예전	10/27~11/2	(사)한국서학회
제5회 팔간서예문인회 초대작가전	11/3~11/16	팔간서예문인회
제10회 대한민국문인회대전	11/7~11/30	(사)한국문인회합창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09 동화책 속 세계여행2	4/4~6/23	EBS
상기정인명왕 20주년 기념 인명속 다종이 인형	5/1~5/11	상기정인명왕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5/15~5/30	신규하
디자인 빛의 세계, 도면이 빛의 갤러리전	6/3~6/23	이인프라넷
20세기 사진의 거장전	9/10~10/29	SES, 오픈갤러리
비주얼인터랙션	9/11~9/16	(사)한국문화사진전총협회
엘로함의 창조된 자연은 아름답다	9/22~10/1	최은주
텍스타일 쇼-빛의 율동	9/5~9/18	Prak's Arts & Wear
디자인은 신이다	10/8~10/16	(주)서울디자인전시장
미움의 손으로 보는 것	10/7~10/13	석필명
제4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10/20~10/28	(주)환경조경학회
제4회 서울-이시안그래픽포스트트 리애블레	11/2~11/9	(사)한국현대디자인협회합창회
EARTH ONE	11/2~11/8	경원대 퍼블릭디자인센터
공간의 기록	11/1~11/8	김홍아, 김향진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청사진	11/10~11/29	해강디자인연구소, 유엔아트제
패션아트제정기전	11/13~11/21	(사)한국패션문화협회
한국 건축의 모더니즘의 작품성	11/25~11/29	건축디자인코리아
김현 디자인 40년	12/2~12/10	김현
기분아 좋아지는 그림전3	12/5~12/12	카페전
나բео 사진디자인 40년 기념-한국인의 얼굴	12/1~12/15	나բео
2009 볼로냐 국제 그래픽 현화전	12/23~10/31	조선일보, ㈜에이모션

V-갤러리

세계보도사진전	7/24~8/26	동아일보사, 세계보도사진재단
2009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전시회 전	9/11~9/16	(사)한국문화사진전총협회
패션사진의 살아있는 신화 (사)라 문한국특별전	9/25~11/29	한겨레신문사, SBA서울산업문화진흥원

Beautiful Life!

with Seoul Arts Center

REPORT ON
ADMINISTRATION & SERVICES

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09

REPORT ON ADMINISTRATION & SERVICES

기 . 획 . 운 . 영

경영사업

Administration

고객서비스

Customer Services

홍보 & 마케팅

Public Relations & Marketing



2009 경영사업

ADMINISTRATION

경영효율화를 위해 조직개편과 정월감축을 단행하였고,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예술의전당에 상주하는 국립예술단체와 협력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가치 있는 국가브랜드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2009년에는 경영효율화와 예술의전당 상주 국립예술단체와의 협력강화방안실천과 관련하여 경영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3국 13부제 조직을 2본부 11부서제로 재편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사무처장직을 신설하여 부서 및 본부 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여 조직활성화를 추구하였다. 직원 정원은 2008년 대비 12%를 감축한 102명으로 축소하였다. 브레인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기획부를 사장직속부서로 편제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기동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보수체계를 투명화하고 적정인원을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경영효율화 정책에 전사적인 참여를 위해 '경영효율화 방침'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규정개정을 위한 노사교섭을 진행하여 노사 간에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상주단체 협력강화방안에 의거하여 공연기획 정책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로 예술의전당과 국립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작품을 기획·제작하는 방식으로 공연장 특성과 방안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가브랜드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9년은 클래식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 예술의전당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해였다. 예술의전당 전역에 관객 이동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점자블록을 설치하였으며, 출입구 경사로를 개선하여 일반관객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하였다. 관객 서비스 공간인 비타민 스테이션에 각종 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집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또한 <The Park>, <아외아트마켓> 등 대중 친화적인 아외공연과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낮 시간대의 공간 활용도도 극대화시켰다.

In 2009, SAC endured several prominent changes in its operations related to bringing about greater management efficiency and implementing stronger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SAC and its residency art troupes (national arts organizations). A reshuffle took place to reorganize the previous three-division-and-13-team system into the current system comprising two divisions and 11 departments, permitting greater operability. We provided a new position of 'Director of Business Operation' to reinforce communication between the various departments as well as between the head office and the departments. This is meant to reinvigorate the overall organizational structure, decreasing the number of employees by 12 percent from 2008, now at 102. The Business Planning Department was connected directly under the president's office to let us better address rapidly-changing business issues and secure flexibility in our operations. Also, we introduced annual salary and wage peak programs to ensure a transparent reward system including optimal hiring to increase productivity. Simultaneously, we established mor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to guarantee corporate-level participation in our policy. With such measures in place, we were able to increase productivity as well as overall employee welfare. Based on the residency troupes' reinforced collaborative strategies, the point of view in our performance planning policy, too, shifted from suppliers to our consumers. By adopting a variety of approaches where SAC and the residency troupes co-plan and produce programs, the new policy implementation is being eagerly anticipated by our patrons. They now know that each of our performance halls will be more specialized, integrating our efforts to transform SAC into a national brand.

Last year we worked particularly hard to render the classical arts more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improving overall accessibility of SAC to broader audiences. We upgraded our transport facilities throughout our premises and installed Braille blocks, expanding the main entrance ramps to greatly improve our accommodation for handicapped visitors. The Vitamin Station, the comprehensive customer service center, increased various service and convenience facilities, hosting various exhibits and events by taking advantage of the concentrated infrastructure. In addition, we routinely hosted public-friendly outdoor performance and programs such as <The Park> and <Art Market> to maximize the space at SAC.





2009 고객서비스

CUSTOMER SERVICES

2009년 기관운영목표에서 도출된 세부실천과제로 '고객서비스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전체 구성원 모두가 '서비스포럼'에 참여하고 '고객사랑 캠페인'을 펼쳐 서비스 마인드를 확산시켰다.



2009년 예술의전당은 '기관 운영목표'에서 도출한 '세부 실천과제'로 '고객 서비스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연초 단행한 직제개편으로 매표, 회원, 주차 부문 등 '고객 1차 접점 업무'가 '고객만족부'에 분장되었다. 예술의전당은 우선, 기존 서비스 제공 체계와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한 데 이어 실천과제의 기본방향을 '고객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삼았다. 또한 'Back to the Basic'을 '고객 사랑 캠페인'의 기본개념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특히 주무부서 위주의 업무로 오해받기 쉬운 캠페인을 '전체 구성원 모두가 실천하는 서비스 마인드 확산 운동'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더불어 매월 <서비스 포럼>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여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관람문화 캠페인>을 펼쳐 고객의 동참이 필요한 범위로 캠페인을 확장시켜 보다 원숙한 관람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매표직영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2010년 하반기 본격 운영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다시 매표대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예술아카데미 강좌의 수강신청이나 예술의전당 공연·전시장을 관람할 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앞으로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와 신청업무 모두가 가능해져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예술의전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마케팅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CRM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 식음료사업은 새로운 메뉴 개발과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감동이 어느 해보다 돋보인 해였다. 다양한 이벤트 및 마케팅을 도입하여 각 매장의 영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카페 모차르트'는 월요일에도 문을 열었다. 고객이 공연 종료 후에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비타민 스테이션의 '카페 벨리니'는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였다. 2009년의 사업목표는 비타민 스테이션 내의 '카페 벨리니'와 '카페 바우하우스' 등 2개의 직영매장이 신설되어 전년 대비 72% 증가된 4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In 2009, Seoul Arts Center focused on implementing stronger customer services. With the reorganization complete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 primary customer contact and services like ticketing, membership and parking assigned to the Customer Service & Information department. After monitoring SAC's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working environment, we made sure our patrons use the services with maximum convenience. In addition, we announced the basic concept of the 'We Love Our Customers' campaign as 'Back to the Basic', setting the mood for our employees to participate in the campaign. Simultaneously, we hosted the monthly Service Forum to catch patrons' complaints and inconveniences on the "spot" and immediately improved on them by setting up specific plans to address them. Also, we launched <Campaign for Elevating Viewing Culture>, expanding its overall scope to include patrons' participation.

<Direct Ticketing System Development Project> is being completing as it is planned to begin its full service in the second half of 2010. Previously, our patrons had to endure an inconvenience when booking their tickets due to logging onto the SAC website, then reserve tickets through an agency. Moreover, patrons had to personally visit SAC or use a postal service or fax machine when enrolling in academy classes or leasing facilities. All these inconveniences will be resolved in the near future as our website is getting ready for the one-stop-service system allowing ticketing, enrollment and leasing with just a few clicks. When this revolutionary project is successfully completed, case-handling and service-using procedures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 thereby increasing efficiency in the way we do our business.

2009 was a year marked by extremely positive responses from our patrons who enjoyed our food and beverage services, showcasing new menus and diverse events. We invigorated each facility by introducing various event programs and marketing strategies. As a result, 'Cafe Mozart' opened even on Mondays, the usual day-off for SAC facilities; 'Cafe Bellini' at the Vitamin Station extended their hours until 11 pm to make sure our patrons can take a break before going home. In addition, all of the SAC food and beverage facilities implemented the 'Happy Hour Event' for customer who order menus after 8 pm and offered complimentary menus. Our sales operation in 2009, which included two more new SAC-operated facilities within the Vitamin Station ('Cafe Bellini' and 'Cafe Bauhaus'), led to a 72 percent year-on-year increase to 4.1 billion KRW.



2009 홍보 & 마케팅

PUBLIC RELATIONS & MARKETING

오페라극장 재개관에 맞춰 예술의전당 위상을 강화하고, 관객에게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술의전당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증폭시켰다. 또한 객석기부제와 문화햇살사업으로 국민과 함께 예술이 주는 감동을 나누었다.



오페라극장이 재개관에 따라 2009년 홍보업무는 재개관과 관련한 행사와 공연을 일려 예술의전당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각 사업부서마다 교유의 사업홍보를 추진하여 예술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고 보다 심층적인 언론기사를 유도하였다. 또한 예술의전당의 위상을 저해하는 오보에 대해서는 중재신청 등 사회적 가치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그 결과 오보계재가 현저히 감소되어 예술의전당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월간 '예술의전당과 함께 Beautiful Life!'는 독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연재기사와 필진을 강화, 읽을거리를 늘려 나갔다. 또한 가독성을 고려해 서체 및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고 기사에 일러스트를 곁들여 시각적 기능도 강화했다. 특히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독자에게 고국의 예술소식을 전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웹진형태로 게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영어, 일어, 중국어로 예술의전당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및 주요 지점에 배포함으로써 외국인 관객의 예술의전당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한 외국인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2009년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환경이 열악했던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사회공헌을 통해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메세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실천하였다. 우리은행, 한화그룹, 대한생명, 현대자동차, BC카드, 기업은행, 부산상호저축은행, (재)정원재단, (주)LG, BMW코리아 등 많은 기업이 예술의전당에 약 20억 8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특히 한화그룹은 국내 최대의 클래식 음악축제인 <교향악축제>를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후원하여 우리나라 클래식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에 기반을 둔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천하고 사회공헌과 메세나를 연결시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오페라극장 리노베이션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예술의전당 각 공간의 지속적인 리노베이션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오페라극장 2,17석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라는 객석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기부자의 이름과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명판에 담아 새로 단장한 오페라극장의 객석 등받이에 부착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일반시민 대상으로 펼친 기부유치 행사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술을 확산시키자는 목적도 있었다. 일례로 어떤 부부는 자신의 명의로 객석기부에 참여한 후 가까운 지인에게도 권유하여 6석을 나란히 붙여 '부부 기부좌석'으로 조성하기도 하였고, 가족·연인·부모·형제·자녀의 명의로 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부객석 수만 큼이나 많은 사연들이 쌓여가고 있으며,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8억 원을 모금하였다.

'문화햇살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에는 10,037명을 초청하였다. 2009년에는 남촌(南村)재단이 참여, '남촌 문화나눔여행'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2008년 대비, 초청인원이 40% 가량 증가되었다. 2008년 이어 개최한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도 '문화햇살사업'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일반관객으로부터 환영받았다. <미피의 즐거운 미술관> 전 동화책 나눔 행사에서도 3,750권의 동화책을 75개의 복지기관, 공부방, 아동센터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12월 28일에는 서울가정법원과 예술의전당이 협력하여 보호처분 중인 청소년에게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유묵전>과 <청소년음악회>의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공익기관으로서 우리 사회를 밝고 활기차게 이끄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2009년 중점추진사업 중 하나는 예술의전당 야외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었다. 예술의전당이 국민의 생활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예술애호인구의 주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객유임을 증대시켜 부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원과 마켓을 결합시킨 형태의 <The Park>를 예술의전당 야외공간에 유지하였다. 예술의전당을 찾는 시민들에게 야외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을 선보이고 마켓과 카페를 설치하여 휴식과 여유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세계음악분수 앞에 '인조잔디공원'을 조성하고 대중친화적인 조각작품도 설치하여 가족단위 관람객으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사업초기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외부업체의 능동적인 참여가 전제되어 마케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였다. 예술의전당 <The Park>는 예술의전당과 대중의 친밀도를 제고시켜 주었으며 공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s the Opera Theater reopened in 2009, our PR tasks for the year were mostly geared at advertising the events and performances related to the re-inauguration of the facility. Each of our departments came up with their own PR strategies, disseminated livelier, more up-close-and-personal news from the arts world and encouraged articles with deeper insight. To reply to some misunderstandings about SAC, we aggressively responded by filing for mediation. As a result, the number of misleading releases significantly declined, helping to restore our image.

Our monthly publication 'Beautiful Life with Seoul Arts Center!' reinforced the number of articles and staff writers, increasing the number of qualified and interesting materials. To ensure greater readability, we revamped our fonts and layout design, adding illustrations to articles for stronger visual effects. Additionally, we posted some materials on our website as Webzine features, allowing readers to catch up with what is happening in the Korean arts world. The readers' response was enormous! We also produced SAC-guiding leaflets in English, Japanese and Chinese and distributed them to major tourist information desks and booths around the country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our center for visitors from abroad. This, too, was received tremendously well with non-Korean visitors and expatriates in Korea.





















2009 was a dire year for management, due to the current global recession. Nevertheless, some of our corporate sponsors continued with their Mecenat initiative and supported our programs. They obviously took into consideration the positive aspects of such an initiative, like the potential for improving their brand value through contributions to society. Numerous corporate sponsors including Woori Bank, Hanwha, Korea Life Insurance, Hyundai Motors, BC Card, Industrial Bank of Korea (IBK), BSHK, Jung-Hun Foundation, LG and BMW Korea donated a combined total of 2.8 billion KRW to SAC. Hanwha, in particular, has been sponsoring <Orchestra Festival>, the largest local classical music gala event, for 10 consecutive years. Additionally, the conglomerate has been also serving as a role model for other companies by participating in social engagements through arts and culture such as the Mecenat program.

To help pay for the Opera Theater renovations and to raise funds for future projects, we launched a seating donation campaign 'Engrave Your Stories in the 2,171 Seats at the Opera Theater.' Donators are entitled to engrave their names and preferred quotations on the plaques affixed to the back of seating inside the Opera Theater. This campaign is unique in that it targeted ordinary citizens as patrons, aiming to spread arts and culture into people's daily lives. For example, a couple who had become our campaign participants encouraged three more couples. As a result, they created six seats in a row dubbed the 'Couple-Donators' Seats.' We also saw donors who contributed under the names of their family, parents or loved ones. The number of seats being accumulated led to some 800 million KRW in donated funds as of the end of December 2009.

SAC's 'Culture Sunshine Project' program offers members of the less fortunate and their children opportunities to enjoy arts and high-culture. In 2009, we invited 10,037 people and, thanks to the sponsorship of J K Huh Foundation, added a new program called 'Namchon Culture-Sharing Journey.' These efforts increased the number of invitees by 40 percent compared to 2008. The concerts and shows staged in 2008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lso well-represented the cause of 'Culture Sunshine Project' and were welcomed by the handicapped and general audience. In addition, SAC launched a story-book sharing event '<Miffy at the Museum>', which donated 3,750 kids books to 75 welfare programs, study rooms and children's centers. On December 28, SAC and Seoul Family Court jointly provided youths in correctional facilities with opportunities to view <Exhibition 'Ahn Jung Geun'> and <2009 SAC Youth Concerts>.

One of the core implementation tasks for 2009 was to transform SAC into an art-themed park. This materialized in the form of <The Park>, an outdoor space event at SAC. The hybrid park and park idea turned SAC into an everyday facility, expanding the basis of arts and fine art lover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our patrons by promoting our non-performance operations. With this new initiative, we showcased a wide variety of outdoor events and performances and installed markets and cafes. Also, a lawn square was installed in front of the World Music Fountain and public-friendly sculptures, which were enthusiastically received by our family patrons. To ensure the new program's diversity at early stage, engagement by external businesses was considered mandatory and more professional marketing approaches were required. <The Park> acted to increase the closeness between SAC and the public.

2009 후원기업 SPONSORS

 한화	2009 교향악축제	 대한생명	11시몬서트 청소년음악회 The Park	 한화증권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리은행	2009 제야음악회
 현대자동차	피거몬의 결혼 백조의 호수	 IBK 기업은행	김대진의 뷰티를 클래식	 CJ 문화재단	연극 템페스트	 GS 강남방송	11시몬서트
 SK telecom	청명 입창순전	 LG	어린이미술아카데미 가치재 구입 후원	 비씨카드	화원재휴	 금호아시아나	제1회 예술의전당 음악경쟁대회 & 콩쿠르
 朝鮮日報	안중근전	 중앙부산거족은행	안중근전	 부산상호거족은행	안중근전	 부산상호거족은행	안중근전
 원수문복재단	원곡 탄생 100주년 기념전	 청명문화재단	청명 입창순전	 (재)정연재단	정연메세나 후원작가전	 BMW	광고후원

2009 예술의전당 후원회

PATRONS OF THE SEOUL ARTS CENTER

※2009년 12월 31일 기준

제7기 임원단

회 장	이중구
고 문	김영수 송 자
감 사	김희철 신명열
수석부회장	박영주
부 회 장	김영호 박승주 최종률
이 사	고종진 패태식 김경자 김의재 김창실 김현실 박승택 박종덕 박종규 서규리 서민식 서병기 신영무 양동훈 윤윤수 윤의숙 이기남 이영혜 이원희 이재식 이종호 임종빈 정승일 정철수 최왕언 최기준 최영철 하영진
자문위원	권오춘 김용원 박희주 허 참 홍라희

무궁화회원

이건희 / 홍라희	전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권오춘	초창기 창학재단 이사장
한국전력공사	법인대표 김갑수
김영호	법인대표 주강수
박성희 / 김경자	고모 이트윅스 이사 / 고모 이트윅스 이사
대일건설	법인대표 박희주 / 김준호
(주)대교	법인대표 강영준 / 김지선
故박석림 / Marquie C. Park	전 글로 아시아나 그룹 명예 회장
윤세영 / 변금옥	(주)SBS 회장
이건산업(주)	법인대표 박영주 / 박인자
주식회사 KT&G	법인대표 박영준 / 주영준
한국가스공사	법인대표 주강수
백종현 / 양영호	프라이빗(산업주) 회장

모란회원

이중구 / 황신미	이중구장점클러니 회장
Hubert Abrons / 이현자	뉴욕시타운페라리아 / 링컨센터 후원회원
(주)SK Telecom	법인대표 손길성 / 박민선
GS 칼텍스	법인대표 하동수 / 김경자
유로통상(주)	법인대표 신용우 / 박준호
KFC(미국지주)	법인대표 김규모 / 변순자
신영애 / 함현진	고보성환 주주
이기남 / 이문호	원문문화재단 이사장 / 한림대 교수
(재정현재단)	이사장 이영숙
정의승 / 유정자	유정재단 이사장, (재)한국경제연구원 이사장

동백회원

김영수 / 원종순	변호사 한국청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태우 / 강정숙	대신증권 대표 부장
박진수 / 양정옥	변호사
박승택 / 이우영	박승택의원 원장
윤의숙 / 신명일	FCOM 대표이사
	도이치투자신탁은행(주) 대표이사

이상완 / 김명희	삼성전자 기술원장 사장
이세웅 / 김명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이윤형 / 박의숙	(주)세이제강 회장
(주)경농	법인대표 이영만 / 이효숙
(주)고려금	법인대표 정재호 / 하은경
동아오츠카(주)	
동일방직(주)	법인대표 서민석 / 여광주
조선비화(주)	법인대표 표상기 / 한희순
태인종합건설(주)	법인대표 이화일 / 문일경
YES24(주)	법인대표 권태환 / 김예리
	대표이사 김동생 / 조영수

목련회원

김우희 / 전유미자	전 현대제철(주) 부회장 / 화가
박한희 / 허우희	포스 데이터 사장
양 용	국채차과 외사회 국제본부 이사
정귀호 / 유정혜	정귀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애	프로덕션 골드맥스 대표
지성현 / 이영주	한상실업 회장
최영철 / 송계숙	송민학원 이사장
최종률 / 신연자	전 예술의전당 사장
허 참 / 홍애자	명지유동 회장

석류회원

김희철 / 박혜진	법무법인 윤춘 변호사
고광복 / 김인호	웅인승업대학 교수
(주)금비	고광비 회장
고석영 / 김영숙	(주)크리넥 회장
고종진 / 유승미	전 (주)두산 회장
곽정환 / 고은아	합동영화(주) 서울극장 회장 / (주)서울극장 사장

구병성 / 김경자	전 고려대 의무부 총장 / 예맥학회 대표
권성문 / 박혜원	KT&T network(주) 대표
기병환 / 이숙희	(주)세원 대표이사
김규선 / 박영문	(주)이코노미 대표이사 / (주)미코노미 감사
김단구 / 최영희	W & M 대표
김상배 / 이윤진	(주)성도L 대표이사
김성하 / 박성혜	(주)삼양사 회장
김성기 / 오은희	한성자동차(주) 대표
김영무 / 신수희	김영정 법률사무소 대표
김정희 / 장유문	(주)한국약품 대표이사
김용원 / 신갑순	보통은행 실과과 대표 / 서울대 교수

김운용 / 박득숙	전 대한항공 회장
김은수 / 이명지	로제화장품 회장
김의재 / 정선숙	법무법인 양현 변호사
김재우 / 구연정	(주)동인SFG 회장
김재호 / 김혜숙	전 (주)유성생공업 사장

김준호 / 권영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나현수 / 송승윤	
문은호 / 박순옥	(주)시공테크 대표
박기석 / 천승주	다다실업 회장
박부일 / 권경순	(주)세종공업 대표
박세홍 / 서해숙	대기산업(주) 회장
박인철 / 배혜순	

박인호 / 김도희	서울중앙병원정신과 교수 / 작가
박종덕 / 조순자	테라리사(이탈리아) 회장
박주선 / 이현숙	변호사
박종규 / 박귀희	(주)화신공업 대표이사
배석두 / 박혜성	(주)사인클러지 대표이사 / 이화여대 종합대학 공간디자인 경영교수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서규리 / 권도훈	현대자동차(주) 고문
서병기 / 정옥엽	법무법인 주현 대표변호사 / (주)DOG 회장
서형희 / 박지란	(재)일신문화재단 이사장
식세일 / 김인숙	(주)대교 회장 / 의사

송 자 / 박순희	법무법인 세종 대표
김영민 / 김현실	신준식 / 김경자
신달림 / 이금순	신달림(주) 상담역
양동훈 / 남현숙	(주)유니온트산 대표
원대관 / 이숙경	건축가 / 이명아빌리티 관장
윤상희 / 김태희	신상희 / 이미경
유정주 / 이경혜	유정주 / 이경혜

윤윤수 / 이효숙	(주)필라코리아 대표
윤종훈 / 김경자	김경자 / 김문자
이동건 / 장영미	이동준 / 장영미
이동훈 / 김원혜	(주)제일화학산업개발 회장
이만주 / 신인숙	조선무역(주) 회장
이병일 / 조 숙	(주)비 회장
이상열 / 박인희	(주)메트로프도덕트 대표 / 한국메트로(주)대표이사

이상일 / 박덕순	(주)일신산업 대표
이서형 / 하인수	김사위원
이수성 / 김경순	세마물운동 중앙회 회장
이신혜 / 조장현	고려문단(주) 이사 / 고려문단(주) 대표
이은규 / 최의경	(재)세일테크(주) 대표
이용우 / 김경희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이우형 / 염각경	(주)조우니 대표
이우용 / 강명심	동아전정주식회사 대표
이은경	법무법인 신 대표변호사

이정환 / 정재정	(주)중근업 회장
이재우 / 이영우	변호사
이정익 / 윤영자	(주)서광전기 대표
이종호 / 홍임선	(주)중외제약 회장
이종훈 / 안우정	(주)성도L 명예 회장 / 대림미술관 이사장
이태환 / 조현숙	변호사
이해광 / 홍인자	삼성중공업(주) 고문
이호환 / 김창실	(주)신화일 대표
배종호 / 석영호	(주)뉴서울호텔 대표
임종진 / 이원희	(사)한일물류사 이사장
전영택 / 홍인화	한라건설(주) 회장
정승일 / 양승주	세일이엔지니어(주) 회장
정우철 / 정윤숙	(주)일신 대표

정유미 / 김현실	정유미(주)원 원장 / 설계건축 디자인사
조병식 / 김신필	서해건설(주) 대표이사 / 재정전략(주) 대표이사
	(주)KJC Corp. 대표이사

지중환 / 김현옥	최창환부 / 민정자
최창환 / 윤광원	최창환부 / 민정자
하영진 / 박진주	하영진 / 박진주
한덕우 / 주언혜	한덕우 / 주언혜
하한성 / 신승애	전 음악평론가
홍영우 / 김혜경	신안광과(주) 대표

장미부부

강태신 / 박경옥	(주)정원종합산업 대표이사
김용원 / 김성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은영 / 김소희	조각가
김학중 / 조경희	한국기정경영연구소 소장
곽수일 / 최창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곽태환 / 이경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구병환 / 서은지	전 고려대 의무부총장 / 서오교의원장
권광호 / 조순녀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
관나래 / 홍정희	지휘자
김갑우 / 정선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경원 / 박애경	법무법인 세종 고문

김경준 / 강장숙	재성병원 원장
김근만 / 이영주	김근만 치과병원 원장
김병윤 / 남현숙	김근만 치과병원 원장
김부식 / 장영미	김부식 법률 사무소 변호사
김성희 / 김문자	(주)도노 대표이사
이종주 / 장성결	(주)D 미디어 회장
김승준	(주)재능컴퓨터 사장
이종주 / 장성결	KCS 성우
김유우 / 유정자	(주)유도(주) 대표이사 회장
김유우 / 김용내	변호사

김정환 / 이영자	전 한일타미즈 사장
김의석 / 유은자	변호사 / 변호사
김장배 / 오윤자	고려대학교 교수
(주)나노스	창립자 / 주재경
김준호 / 박미란	자스타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진현 / 민태희	문화방송 고문
김정환 /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영숙 / 이혜숙	JW 타미즈 회장
홍문우 / 김경희	홍문우 대표이사
리운정 / 권준경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함문호 / 정은숙	전(주)오메르단 단장
박진우 / 공영자	장문학회 이사장
박종관 / 안숙희	한국배치 대표이사
박지훈 / 홍연경	대기모토모터(주) 대표이사
박정환 / 임광자	(주)이티팩스(주) 대표이사
박영민 / 임희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진환 / 김희영	삼성 SDS 사원
박정환 / 이혜재	파나소닉알레미(주) 회장
박기환 / 이영숙	영남대학교 석좌교수
박영호 / 조재진	우원통상 회장 / 육(부)방송 이사장

배종호 / 석영호	(주)극선 대표이사 / (주)극선당 상무
송경희 / 노만수	명지대학교 교수 / 노만수 유병리후자증인
송승근 / 강영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송승근 / 이혜숙	변호사
이원희 / 김경순	(주)주하 (주)리미 대표 대표
이한규 / 조문순	전 남상해운항공사 대표
오근희 / 권재혁	안양과학대학 총장
유영택 / 정호근	법무법인 윤춘 대표 변호사
윤영택 / 이정희	한국FPI협회 회장
윤경택 / 홍지숙	(주)대우증권 대표이사
윤재홍 / 백아리	윤재홍 법률사무소

윤현수 / 김경우	(주)정원종합산업(주) 대표이사
유정환 / 노영원	대우증권 팀장 / 백(주)리후자증인
이연우 / 박위자	한국항공협회의 회장

이광재 / 박소현	이광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교상 / 신이림	(주)올리데이인 호텔 실장
이근부 / 김미경	이근부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기동 / 박은자	(주)서울조구 대표 /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민교 / 김효신	전 한화산업개발 부사장
이병달 / 조수미	(주)이엔스빌 대표이사 / 스무대대 교수
이봉준 / 김경애	(주)인보식품 대표
이승준 / 최현범	(주)인보식품 대표
이영조 / 김정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영배 / 김혜선	여의도 성모외과 의원 원장

이우석 / 황순희	동아수출공사 대표
이원희 / 이영애	대한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사장
이인호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이만수 / 최서원	수원대학교 이사장
이재식 / 윤임숙	변호사
이영덕 / 이문경	(재)삼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대 / 이문경	송백회 사무총장
이철우 / 이경준	전 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
이현규 / 최순희	(주)까미에 대표
이종주 / 장성결	서귀농협 대표
이우동 / 이병애	법무법인 (유)태평양 변호사
이종규 / 양미을	감사장

임한홍 / 김혜경	법무법인 마경 대표 변호사
전필립 / 최원정	(주)파라다이스 회장
전효택 / 이숙자	서울대 공과대 교수
정 남 / 김성현	성우 / 외환은행 차장
정남식 / 주재경	(주)우도메이 이사
정성복 / 이숙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중부탱크리미널 대표
정성진 / 서민석	전 법무부 장관
정장환 / 유낙영	(주)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정진현 / 정주현	팬타시스템테크놀로지 회장
정환상 / 정일순	(주)올리데이 대표이사

조규원 / 한숙현	이화산업(주) 부회장
조용수 / 김요진	(주)서진엔지니어 대표
조홍식 / 박은영	이화유동(주) 대표
지 훈 / 이주원	SM 북 대표이사
차성윤 / 김경자	세종학원 이사장 / 성정문화재단 이사장
차정일 / 유옥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차재신 / 신정희	차희과 회장
천석규 / 김혜정	천일식품(주) 대표이사
천희준 / 정금자	(주)쌍지 대표 / (주)쌍지 감사

최기환 / 홍인자	전 CES 재단 이사장
최광준 / 박한주	가이타(주)원장
최우문 / 이경희	삼척화력발전회 회장
최종열 / 김연선	(주)파라다이스 대표
최종욱 / 조동욱	(주)SKM 회장
최희진 / 이혜숙	법무법인 자유로 대표 변호사
하태석 / 박재희	(주)도노(주) 회장 / (주)도노 대표

한상량 / 윤덕희	보원(주)원리(주) 대표이사
한호현 / 이영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태형 / 백민정	신상개발(주) 회장
홍근희 / 이봉순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
홍경택 / 양영숙	(주)영삼업 대표이사
황병주 / 신정옥	동명물산(주) 회장
황재철 / 정경자	황재철신부인(주)원장
Yamada Masakatsu	JFC(주)대표이사 소장
Yamada Keiko	

장미개인회원

강화자	강화제세토오페라 단장
패태식	(주)장미악기 사장
김덕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김성희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김민희	서울오페라 단장
김석균	예치과 원장
김성신	회사원
김은영	

김종찬	(주)한일광고 사장
김진숙	연세대 비서 실장
김재진	상명대(대) 겸임교수
노경	노(주)파나소닉
박동훈	(주)파라다이스 사장
박인숙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박정택	변호사
박종욱	교사
배현민	사무사
백영호	세이치과 원장
백민옥	내과 의사

서명경	서울대 공대 교수
서두비	(주)두비 대표이사
송승환	(주)파나소닉
송정환	(주)인보빌리 대표이사
신정옥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
양수희	글로벌오메르단 단장
윤해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이기춘	서울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이세홍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수연	파나소닉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
이태영	태조재학 회장
안영기	동화통상(주) 대표
장혜원	이대응대 교수
전경수	서울대 공과대 교수
정선홍	신상재단 이사장
조재희	국회의원
조성준	GOLF TODAY 대표
주희희	교사
지영연	전상장(주) 회장
최홍용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홍하성	서울중앙법원 소회(주)과 교수
홍원선	GE Korea 전무
최지화	의사
Thomas Park	KF&ASSOINC 대표
김영정	상산(주)대 물문과 교수
전지자	서울대 공과대 교수
한영명	

특별회원

장필립	KBS-FM DJ, 음악 평론가
황인용	아나운서

Beautiful Life!

with Seoul Arts Center

REPORT ON
FINANCE & STATISTICS

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09

REPORT ON FINANCE & STATISTICS

재, 정, 및, 통, 계

운영통계 | Operating Statistics
예산실적 | Budget Overview
대차대조표 | Balance Sheet
손익계산서 | Statements of Profit & Loss

2009 운영통계

OPERATING STATISTICS

공간별 행사 및 관람객 현황 Event and Audience Profiles

음악당 Music Hall

	기획 SAC	대관 hires	2009 total	2008 total	Growth
콘서트홀 Concert Hall					
공연횟수 performances	55	313	368	377	-2%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62,703	240,402	303,105	310,548	-2%
초대관객 complimentary audiences	34,049	225,889	259,938	265,050	-2%
총 관람객수 total audiences	96,752	466,291	563,043	575,598	-2%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2,494석 seats)	71%	60%	61%	61%	1%
리사이틀홀 Recital Hall					
공연횟수 performances	12	378	390	409	-5%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1,664	30,652	32,316	34,318	-6%
초대관객 complimentary audiences	1,554	49,686	51,240	57,520	-11%
총 관람객수 total audiences	3,218	80,338	83,556	91,838	-9%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346석 seats)	78%	61%	62%	65%	-3%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공연건수 programs	4	17	21	1	-
공연횟수 performances	22	146	168	9	-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26,881	91,503	118,384	16,652	-
초대관객 complimentary audiences	6,595	63,030	69,625	1,535	-
총 관람객수 total audiences	33,476	154,533	188,009	18,187	-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1,945석 seats)	78%	54%	58%	92%	-
*2,199석 기준					
토월극장 Towol Theater					
공연건수 programs	2	23	25	31	-19%
공연횟수 performances	36	208	244	252	-3%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10,540	47,260	57,800	61,807	-6%
초대관객 complimentary audiences	2,230	32,775	35,005	34,903	0%
총 관람객수 total audiences	12,770	80,035	92,805	96,710	-4%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601석 seats)	59%	64%	63%	65%	-2%
*594석 기준					
자유소극장 Jayu Theater					
공연건수 programs	1	27	28	33	-15%
공연횟수 performances	19	268	287	283	1%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0	24,776	24,776	24,497	1%
초대관객 complimentary audiences	1,319	16,551	17,870	15,775	13%
총 관람객수 total audiences	1,319	41,327	42,646	40,272	6%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206석 seats)	34%	75%	72%	62%	10%
*228석 기준					
야외극장 Outdoor Stage					
공연건수 programs	14	-	14	1	
공연횟수 performances	35	-	35	23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	-	-	-	
초대관객 complimentary audiences	9,180	-	9,180	25,420	
총 관람객수 total audiences	9,180	-	9,180	25,420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전시건수 programs	6	29	35	33	6%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140	480	620	579	7%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37,060	446,437	483,497	302,654	60%
초대관객 complimentary audiences	12,045	146,298	158,343	154,006	3%
총 관람객수 total audiences	49,105	592,735	641,840	456,660	41%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기획 SAC	대관 hires	2009 total	2008 total	Growth
전시건수 programs	5	30	35	42	-17%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276	413	689	401	72%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7,628	4,285	11,913	5,539	115%
초대관객 complimentary audiences	15,746	49,080	64,826	68,159	-5%
총 관람객수 total audiences	23,374	53,365	76,739	73,698	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전시건수 programs	3	21	24	8	200%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152	327	479	403	19%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39,843	98,926	138,769	169,119	-18%
초대관객 complimentary audiences	19,740	60,445	80,185	81,654	-2%
총 관람객수 total audiences	59,583	159,371	218,954	250,77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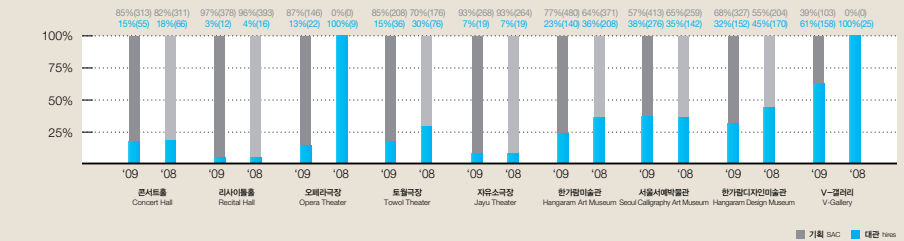
V-갤러리 V-Gallery

전시건수 programs	4	3	7	1	600%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158	103	261	25	944%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	25,390	25,390	-	-
초대관객 complimentary audiences	75,207	13,250	88,457	10,218	766%
총 관람객수 total audiences	75,207	38,640	113,847	10,218	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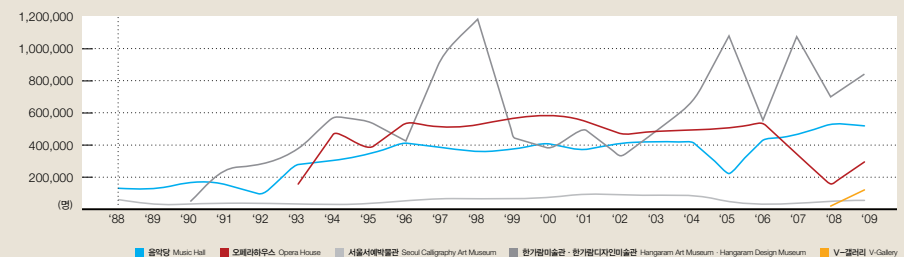
전관 총 관객 수 2009 Total Audiences

2009	2008	2007	2006	Growth
2,021,436	1,639,374	2,091,177	1,721,122	23%

공간별 기획 & 대관 프로그램 비율 SAC Presentations & Hires Ratio by Venue



연도별 관객수 추이 Annual Audience by Venue



2009 예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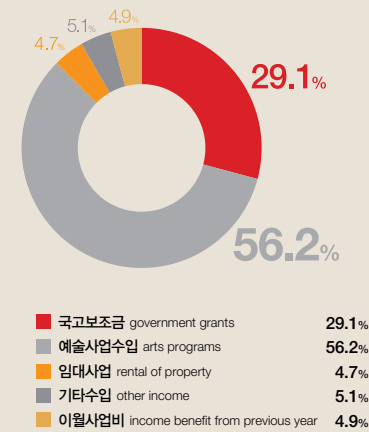
BUDGET OVERVIEW

수입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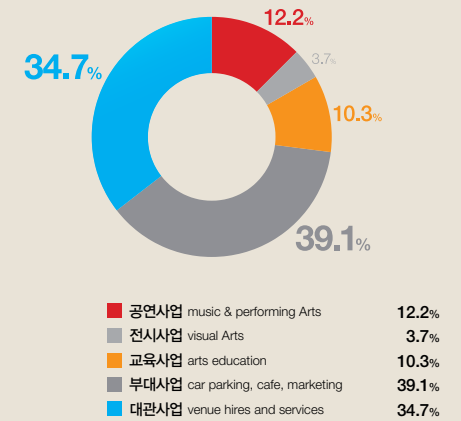
(단위 : 천원 K₩' 000)

구 분	예산 Budget		실적 Results		달 성 률
	금 액	구성비율	금 액	구성비율	
국고보조금 government grants	11,049,000	27.3%	11,049,000	29.1%	100.0%
예술사업수입 arts programs	24,009,423	59.2%	21,343,497	56.2%	88.9%
공연사업 music & performing arts	3,437,925		2,605,333		75.8%
전시사업 visual arts	813,420		792,540		97.4%
교육사업 arts education	2,084,938		2,185,528		104.8%
부대사업 car parking, cafe, marketing	11,220,740		8,345,408		74.4%
대관사업 venue hires and services	6,452,400		7,414,688		114.9%
임대사업 rental of property	2,252,306	5.6%	1,809,716	4.7%	80.3%
기타수입 other income	343,000	0.8%	1,926,504	5.1%	561.7%
이자수입 interests	43,000		495,705		1152.8%
후원금수입 donation	250,000		150,000		60.0%
기타 others	50,000		1,280,799		2561.6%
이월자금 balance benefit from previous year	1,012,911	2.5%	-	-	-
이월사업비 income benefit from previous year	1,860,360	4.6%	1,860,360	4.9%	100.0%
합 계 Total	40,527,000	100.0%	37,989,077	100.0%	96.2%

수입 Income



예술사업수입 Income from Arts Pro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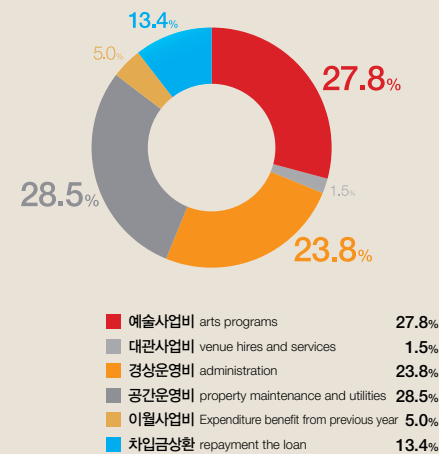


지출 Expend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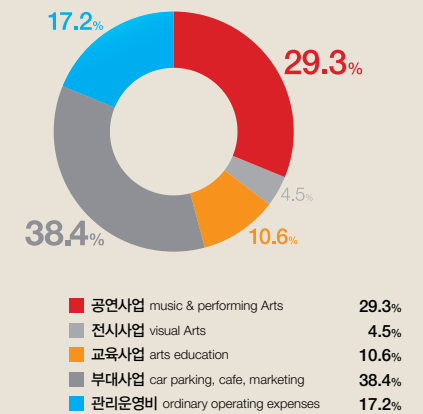
(단위 : 천원 K₩' 000)

구 분	예산 Budget		실적 Results		달 성 률
	금 액	구성비율	금 액	구성비율	
예술사업비 arts programs	12,107,523	29.9%	10,395,179	27.8%	85.9%
공연사업 music & performing arts	3,772,450		3,049,200		80.8%
전시사업 visual arts	758,502		460,035		60.7%
교육사업 arts education	1,290,662		1,102,629		85.4%
부대사업 car parking, cafe, marketing	4,341,169		3,993,861		92.0%
관리운영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1,944,740		1,789,454		92.0%
대관사업비 venue hires and services	607,333	1.5%	564,324	1.5%	92.9%
경상운영비 administration	9,497,529	23.4%	8,909,318	23.8%	93.8%
인건비 employee benefits	7,490,340		7,175,241		95.8%
경상사무비 administrative expenses	2,007,189		1,734,078		86.4%
공간운영비 property maintenance and utilities	11,100,531	27.4%	10,679,520	28.5%	96.2%
시설유지비 utilities	9,430,875		9,018,949		95.6%
시설개보수비 property maintenance	1,669,656		1,660,571		99.5%
이월사업비 expenditure benefit from previous year	1,860,360	4.6%	1,860,360	5.0%	100.0%
차입금 상환 repayment the loan	5,000,000	12.3%	5,000,000	13.4%	100.0%
예비비 reserve	353,724	0.9%	-	-	-
합 계 Total	40,527,000	100.0%	37,408,701	100.0%	92.3%

지출 Expenditure



예술사업비 지출 Expenditure for Arts Programs



2009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FINANCIAL OVERVIEW

제23(당)기 2009. 12. 31. 기준 22th financial year ended dec 31, 2009
제22(전)기 2008. 12. 31. 기준 22th financial year ended dec 31, 2008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제23(당)기	제22(전)기
자산 assets		
I. 유동자산 current assets	17,554,897,452	16,589,030,324
1. 당좌자산 quick asset	17,554,897,452	16,589,030,324
II. 고정자산 fixed assets	270,620,773,093	278,674,577,632
1. 투자자산 investment asset	2,834,000	14,714,000
2. 고정자산 tangible asset	270,617,939,093	278,659,863,632
자산총계 total assets	288,175,670,545	295,263,607,956
부채 liabilities		
I.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19,356,243,514	22,371,535,609
II. 고정부채 fixed liabilities	4,678,306,610	3,318,292,460
부채총계 total liabilities	24,034,550,124	25,689,828,069
자본 capital		
I. 자본금 capital	273,331,076,905	273,331,076,905
II. 이익잉여금 surplus (deficit)	(9,189,956,484)	(3,757,297,018)
자본총계 total capital	264,141,120,421	269,573,779,887
부채와자본총계 total liabilities and capital	288,175,670,545	295,263,607,956

(단위 : 천원 K₩ 000)

※ 특별법인 예술의전당의 회계단위는 일반회계(비영리사업)와 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기 대차대조표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대차대조표임.

The accounting unit for the Seoul Arts Center, which is a special foundation, include general accounting (for nonprofit businesses) and special accounting for commercial businesses, and the above balance sheet includes both accounting unit.

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Profit & Lo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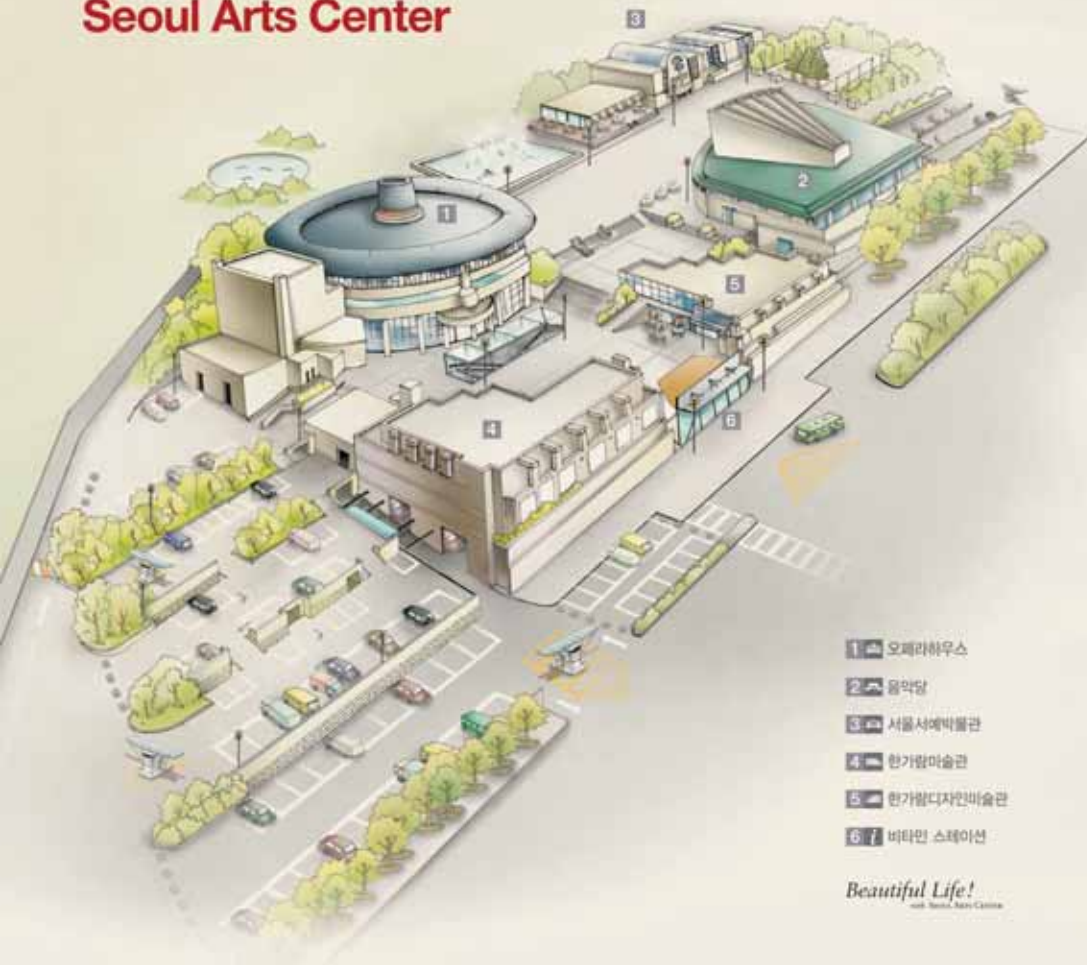
	제23(당)기	제22(전)기
I. 사업수입금 operating income	31,236,314,851	33,639,894,607
1. 공연사업수입 Music and performing arts programs	3,778,878,536	5,236,257,917
2. 전시사업수입 Visual arts programs	1,106,110,856	703,811,675
3. 강좌사업수입 arts education	2,219,686,120	2,062,906,908
4. 부대사업수입 car parking, cafe, marketing	7,086,897,079	5,048,598,768
5. 대관사업수입 venue hires and services	7,678,485,367	5,857,383,738
6. 기타수입 other income	9,366,256,893	14,730,935,601
II. 사업비용 operating expenses	10,091,579,317	9,582,426,705
1. 공연사업비 Music and performing arts programs	3,185,672,623	3,963,486,967
2. 전시사업비 Visual arts programs	951,458,082	935,871,124
3. 강좌사업비 arts education	1,099,971,254	981,964,080
4. 부대사업비 car parking, cafe, marketing	4,057,867,572	2,840,430,456
5. 대관사업비 venue hires and services	581,780,190	488,688,780
6. 공익사업비 public expenses	214,829,596	360,385,298
7. 학예연구사업비 academy expenses	0	11,600,000
III. 사업이익(손실) Operating profit(loss)	21,144,735,534	24,057,467,902
IV. 일반관리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25,691,400,303	22,019,722,989
V. 영업이익(손실) operating income	(4,546,664,769)	2,037,744,913
VI. 사업외이익 non-operating income	1,348,220,864	898,249,361
VII. 사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s	2,234,215,561	294,731,314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profit before income taxes	(5,432,659,466)	2,641,262,960
IX. 법인세비용 income taxes	0	0
X. 당기순이익(손실) net Profit(loss)	(5,432,659,466)	2,641,262,960

(단위 : 천원 K₩ 000)

※ 특별법인 예술의전당의 회계단위는 일반회계(비영리사업)와 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기 대차대조표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대차대조표임.

The accounting unit for the Seoul Arts Center, which is a special foundation, include general accounting (for nonprofit businesses) and special accounting for commercial businesses, and the above balance sheet includes both accounting unit.

예술의전당 안내
Seoul Arts Center



- 1 오페라하우스
- 2 음악당
- 3 서울서예박물관
- 4 한가람미술관
- 5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6 i 비타민 스테이션

Beautiful Life!
with Seoul Arts Center

발행처 예술의전당 02-580-1300
137-78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발행인 김장실
발행일 2010년 5월
편 집 예술의전당 경영기획부
디자인 예술의전당 유동선
인쇄 대일인쇄
편집 (주)인스타피크로이

1339 예술의전당 운영보조사업: 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sac.or.kr) 제공

Photography Credits

14p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Photo by Chris Lee
22p 발견자 오아사 2007
마릴린 먼로 이승우 2009
만종군 일러스트(한국) 소정, 유크루대학(대학) 17개교
니미라 남이성 문화기획팀 제공 (각종 장난에서 시계방향 순)
25p 전지향도 피델리티로 부모나로 1508-1512
56p 예술의전당 전경 Illustrated by 연희정

*상기 표기된 외의 모든 이미지 _ 예술의전당 제공